K

P

A

한국화

Korean Painting Art

2025년 통권 제32호

2025 올해의 작가 윤대라

나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기복(祈福)의 마음,
잘되기를 바라고, 복을 빌며, 불안을 달래는 원초적 염원을 시각화한다.그 마음은 종교 이전의 감정이자,
인간이 삶을 견디는 하나의 방식일 것이다.

성(聖)과 속(俗)이 교차하는 상징들을 조합해 구축한 제의(祭儀) 공간은
인공의 재료로 화려하게 피어난 조화(造花)로 가득 채워져,
자연의 조화(造化)[1]를 아이러니하게 패러디하며 가상의 신성을 드러낸다.
나는 이 가상의 제의 공간 속에서 관객과 마주 앉아 그들의 바람을 듣고 '소원첩(所願帖)'을 써 내려간다.

이 '소원첩 퍼포먼스'에서 나는 감응의 매개자가 된다.
색동옷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색동방울과 'hope 바람' 부채를 흔들며
소망첩에 적힌 바램을 관객과 함께 소리 내어 읊는다.
이 행위는 전통적 주술 의례의 엄숙성을 전복하고,
가벼움과 명랑함으로 전이된 제의를 실현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의례를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현대인의 감정과 욕망이 공존하는 열린 장(場)으로 확장시킨다.

언어와 몸짓, 에너지의 교류를 통해
각자가 가진 내밀한 기원과 소망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관객은 스스로 놀라워 하기도 하고, 웃기도 울기도 한다.
그렇게 발현되는 소통의 시간은
현대인이 잃어버린 감정의 통로이자 감응의 현장이 되고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원초적 울림을 불러내는 예술적 의례가 된다.

1) 조화 造化 : 만물(萬物)을 창조(創造)하고 기르는 대자연(大自然)의 이치(理致). 또는 그런 이치(理致)에 따라 만들어진 우주(宇宙) 만물(萬物).


DERA
오고있어성

CONTENTS

01 올해의 작가

2025 오늘의 작가

04 권기철
05 김준근
06 박두리
07 박방영
08 박성수
09 박종갑
10 박지예
11 방정엽
12 손다운
13 손종민
14 송화정
15 오송규
16 윤대라
17 이승훈
18 이지이
19 이철량
20 이호억
21 임 효
22 임희성
23 정미현
24 정진용
25 최지우

2025 전시 리뷰

27 개인전 - 박종갑
28 개인전 - 이승훈
29 개인전 - 박방영
30 개인전 - 손종민
31 개인전 - 임희성
32 개인전 - 박성수
33 개인전 - 진희란
34 개인전 - 박두리
35 개인전 - 정미현
36 개인전 - 윤대라
37 개인전 - 최지우
38 개인전 - 권기철
39 개인전 - 이지이
40 단체전 리뷰

2025 특별 기고

45 이슬기 - 다층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미술관 교육 :
'킹콩(King-Kong)'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
48 정진용 - '전주, 다시 호남의 중심으로'의 미술적 실현을 위해
56 강경석 - 전시탐방 허백련상 수상기념전 작가 이철량 소개
58 조재휘 - 작업실 탐방, 장영애 작가
60 차세대 작가를 바라본다. 1.서재이 - 전북대학교
61 차세대 작가를 바라본다. 2.우이진 - 경희대학교
62 차세대 작가를 바라본다. 4.정지용 - 충북대학교
63 차세대 작가를 바라본다. 3.정희정 - 중앙대학교
64 한국회화회 발자취

K

P

A

또 다른

화·향

한국화 2세대 展

2025.11. 20.(목) - 12. 3.(수)

우진문화공간

5493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376

TEL: 063) 272-7223 www.woojin.or.kr

권기철 Kwon Ki-chul



Untitled 91x53cm 한지위에 혼합재료 2025

수묵 작업 - <어이쿠>, <무제>

나의 수묵 작업은 몸으로 그리는 몸 그림이고, 한지 위에 선이 변주되는 추상이다. 대상의 본질을 이미지로 읽고 몸의 제스추어로 변환시키며 직관과 몸짓만 남도록 한 또 다른 형상이다. 서체에서 출발한 타이포가 드리핑 된 <어이쿠>, <무제>란 표제는 의미가 이미지 개념으로 스며드는 작업, 즉 순간과 행위의 하나를 의미한다.

한일자 (一) 선으로 시작된 하나의 상징이 때로는 수만 갈래 다양한 획으로 변주된다. 일테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一卽多 多卽一'(일즉다 다즉일)의 함의다.

작위와 무작위가 엄밀히 구획되는 작업에서, 붓과 먹은 마치 능동체 인 듯 내 몸과 다르지 않다. 한지와 나는 발묵과 번짐, 흘러내리기, 튀기기 등의 작용으로 팽팽한 긴장의 순간을 최대치로 구현한다. 그 위에 발현된 불균형한 형상들의 긴장은 밀고 당기는 내밀한 에너지로 분배되어 균형미를 획득하려 한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무아지경으로 몰입되는 지점, 몸의 관성이 작동하는 행위가 생각이 분화하는 임계점을 만나 작업은 존재하되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재 각성 된다. 정신의 날이 획으로 체득되고, 육화된 몸의 행위만을 남긴다. 나의 행위와 나의 그림은 완전한 합일체이다.

2025 권기철

경북대학교 미술과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제주국제비엔날레, 트라이튜미술관(미국),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일본), 조지아 현대미술관 비전 오프 콜라보레이션, 사라예보 윈터 페스티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로미술관등 기획전에 참여하였고, KIAF, DIAF, BAMA, MANIF, 상하이 엑스포, 서울아트페어에 출품하였다. 미술로 보는 스포츠와 놀이전, 스펙트럼-리듬 조형 교감전, 남도문화 음식기행전, 서울현대한국화전, 한국화동질성회복전 등, 1993년부터 파리, 도쿄, 서울, 대구, 부산, 제주에서 63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구미술관 (대구), 이중섭미술관 (제주), 인당미술관 (대구),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정부종합청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국회의사당(서울), 국립국어원 (서울), 동양엘리베이터 (서울), 대구시청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대구) 대구은행본점 (대구), 현대중공업 (울산), 포스코포항제철 (포항),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대구검찰청서부지원 (대구), 달서문화재단 (대구), 도서출판재원 (서울), 601 비상 (서울), 칼레이트 CC (대구), 아트리움모리 (성주) **출판물** - 금세기 미술산책 권기철, 주노아트, 2008, 바람 소리 권기철, 601 비상, 2010, Now The Korea Artist 권기철, 도서출판 재원, 2014, 권기철, 인당미술관, 2014, 세상을 그리다, 달서문화재단, 2017, Now The Korea Artist 권기철, 도서출판 재원, 2022
M.P_ 010-2521-1431 E-mail_ tokipul7daum.net www.instagram.com/kwon_kichul

김준근 KIM Jun-keun



기억여행 2025-1 72.6x91cm 석분,토분,담채 2025

유년 시절 경험되어진 소중한 기억들이 자연스러운 선묘와 형상들로 화면을 통해 마주한다. 이러한 기억의 조각들은 자연 친화를 통해서 얻은 작가가 살아온 유년의 일기장이다. 이러한 기억들은 석분과 토분으로 만들어진 화면위에 상감기법과 담채로 기록된다. 아련한 기억속에 남아있는 유년의 꽃밭을 오늘도 조용히 들여다 본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미술학박사)
국내외 개인전25회,단체전 및 초대전 300여회, LA한국문화원 초대전 (LA한국문화원 초대전/미국), MBC 미국개국기념 한국미술 대표작가전 (귀넷몰콘서바토리 아트홀/미국), 불룸비스타 한국회화회 기획초대전(불룸비스타 갤러리), MUSEO DEL MARMO초대전(MUSEO DEL MARMO/이탈리아), 파리앙상블 초대전(Euni Ahn Allard 갤러리/프랑스), 한국기초조형학회 산호세대학 초대전(San Jose State Univ./USA), 문명의 기억과조형(주멕시코한국대산관문화원)
현)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명예교수
M.P_ 010-2426-2632 E-mail_ nature@cbnu.ac.kr

박두리 Park Du-ri



#3-1 33.4x24.2cm 한지에 채색 2025

비유적 장치를 통해 현실로 전환되는 임계점을 회화로 기록한다. 주관적 인식 속에서 형상화 된 것들은 현실의 감각을 소환하는 상징적 통로로 작동하며 비유적 장치로 실재를 다루는 태도를 보여준다. 언어 이전의 것들은 회화 위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고정되지 않고 접히고 쌓인다. 이는 중첩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내재됨을 의미한다.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5 Case Like, 오분의일, 광명, 2025 하염없는 바깥, 팩션, 서울, 2022 자두만한 혹, 달천예술창작공간, 대구, 2020 긍정적 뜨내기, 신세계 갤러리, 광주, 2019 Fragile, 경성방직 프로젝트, 서울, 2018 경계의 모양-집합B,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2017 Conte, 갤러리 밈, 서울 **주요 단체전** 2025 물결의 연대기, 디아크문화관, 대구, 2024 예술 통신사 프로젝트, 시안미술관, 영천, 2024 리그라운드, 포스코갤러리, 포항, 2023 Digging,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레지던시** 2023 대구예술발전소 13기 입주작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 2022 달천예술창작공간 2기 입주작가 (달성문화재단, 대구), 2020 경남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산청), 2019 대만 타이베이 관두미술관 KdMoFA 단기 입주작가(대만, 타이베이), 2018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전주문화재단, 전주) **수상** 2022 인카네이션 예술상 (인카네이션 문화예술재단), 2019 전북청년 (전북도립미술관), 2018 제19회 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 (신세계갤러리, (주)광주신세계)

박방영 Bak Bang-young



夢明(몽명) 62x103cm 장지위 혼합 2025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물들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펼쳐진 것이다. 옛 글 중에 관물지외물(觀物之外物)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내가 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DNA, 활동성, 방향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기가 보는 것과 조응하면서 자신을 기억 <REMEMBERING. Re(다시)-Member(조직하다)>해 내는 것이다. 다시 조직해가며 자기 찾기를 통해 진화해 가는 것이다. 내 인생 길에서 인연 만남 체험했던 모든 것이 현재의 나이다.

나는 획으로 지지체를 삼고 작업을 한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서예, 서법으로 전국대회 최고상을 탔던 만큼 획에 대한 느낌을 잘 알고 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서예의 필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동양의 획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밧줄 같은 둥근 입체성을 가진 것이다. 획은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 획을 통해서 삶에서 느끼고 깨닫는 것들, 자연과 인간 어릴적 즐거웠던 기억들. 우리가 궁극에 도달해서 살고 싶은 본래의 고향(본향). 우리가 예로부터 가져왔던 우리 것. 역사와 전통, 해학, 고졸미, 원시성, 영적 진화와 민화가 그랬던 것처럼 집안에 운세를 만들거나 발복, 건강 등의 바램도 그리곤 한다. 그림을 그리다는 것은 바램이나 선언을 실체화 시켜 당겨 끌어 온다는 말이다. 꿈을 그리다, 사랑을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다. 그리워한다는 말이다. 그리워한다는 의미는 바램(에너지)을 끌어 온다는 말이다. 꿈을 끌어온다. 사랑을 끌어온다는 말이다. 그림은 바라는 일, 즉 보다나은 삶을 끌어 오는 행위이며 꿈, 사랑, 바램을 실체화 시키는 일이며, 영적 진화를 이뤄가는 길이다.

나의 그림은 일필휘지로 기운생동 하게 분출하듯 한지위에 먹과 펄 아크릴을 혼합해서 그림을 그린다. 한지는 스며들고 번지는 효과가 있어 위로만 쌓이는 캔버스와 구별된다. 보다 동양의 정서에 어울린다. 나의 그림을 통해 건강하고 즐겁고 깊은 삶으로 이끌 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작가 박방영

198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염색전공 졸업, 1989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1993-5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수학, 2010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박사과정수료 **개인전** 2025 'I See Me'展 (아트큐브 투알투 갤러리, 서울), 2023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 전시 (국립공주박물관, 공주) **국내·외 개인전 25회 및 기획, 초대전 300여회 참여 작품소장** OECD 프랑스 파리 사무국, 전주팔복예술공장, 인천아트플랫폼인천문화재단, 건축물장식 설치 (제목: 고구려 여행)우수영마을 부조 작품 설치 (제목: 1.거북선과 강강수월래 2.우수영마을이야기)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경기도미술관경기문화재단청주박물관, 국립극장두바이대사관, 제주현대미술관 , 동아제약연구소, 반계유형원유적지, 인천의료원, 행촌문화재단, 미황사 등 **기타활동** OECD World Peace Forum 퍼포먼스 (송도컨벤시아, 인천), G20정상회의 갈라쇼 퍼포먼스 (하얏트호텔, 서울), GPC AWARD 드로잉퍼포먼스 등
M.P_ 010-8971-3451 E-mail_ bakbangyoung@gmail.com

박성수 Park Sung-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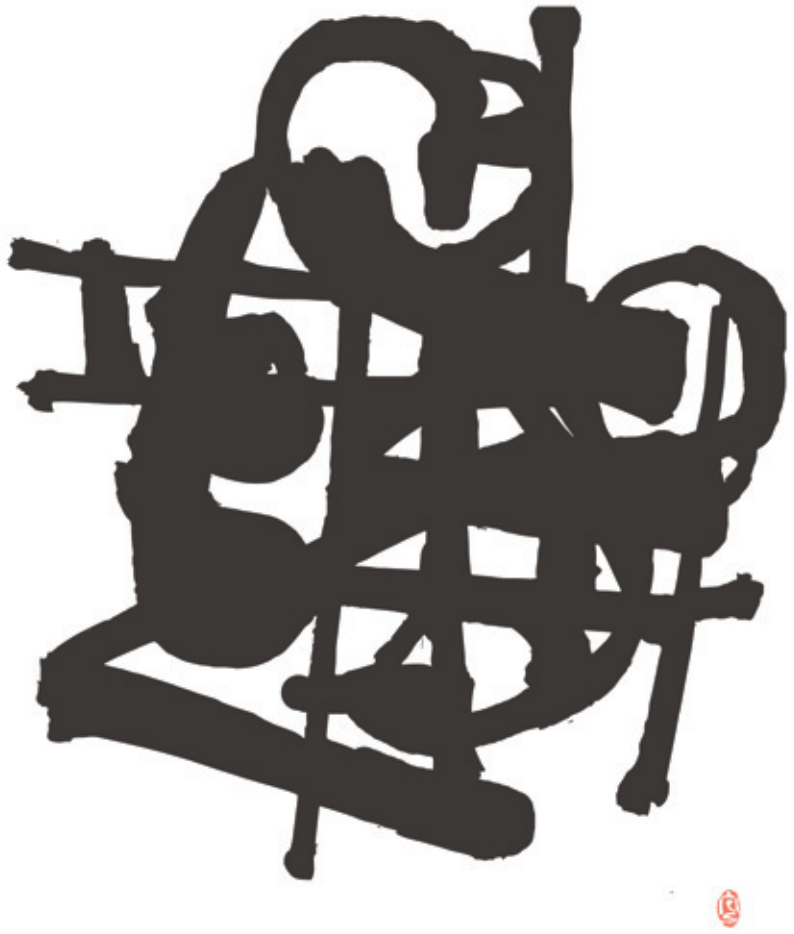
인체 연구1 (Torso Studies)
83x68x42cm 철, 닥종이, 먹, 돌(Steel, Dak paper, Concrete, Korean Ink, Stone) 2025

박성수 작가는 가시적인 주변 환경을 소재로 작업하는 것에서 출발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인류의 기원과 생물학적 원천으로 관심을 확장해 왔다. 한국화의 수묵 작업은 다양한 재료 실험을 거쳐 아크릴과 오일, 닥종이의 질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까지 전개된 '전생연구' 연작을 통해서작가의 시적이고도 추상적인 작업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의 시각적 경험의 과잉 속에서 한지 작업을 통해 촉각적인 경험을 환기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개인전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에서 작가는 촉각성에 집중하여 과잉된 시각성의 시대에 새롭고도 직접적인 삶의 감각을 불러오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박성수 작가는 최초로 '닥종이 입체 작업'을 선보인다. 이 입체 작업들은 인체를 닮아 유기적이고도 추상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닥종이 특유의 질감으로 완성된 표면의 촉각성이 두드러진다. 이에 더하여 작가 본인 신체의 행위에 집중한 수묵 작업들이 함께 전시되어 평면 작업에서도 움직임을 읽어내도록 관람객의 이목과 감각을 이끈다.

조재휘 미술평론가는 "박성수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선보인 닥종이 입체 작업들은 먹으로 그려냈던 드로잉에 촉각성을 덧입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닥종이 입체작업들은 뼈대나 프레임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피부이고 살(flesh)이다. 이처럼 박성수는 몸이라는 스펙터클을 해체하고 촉각이라는 가능성을 통해 재구축한다"라고 평했다. -박성수 개인전《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2024,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 보도자료 발췌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박사과정 재학,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025 영겁의 생_교동미술상 수상작가전, 교동미술관, 전주 외 20회 **단체전** 2025 <파아이:물질 연습>, 소현문, 수원 외 60여회 **수상경력** 2025 교동미술상, 교동미술관, 2016 전북 청년작가 선정, 전북도립미술관,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2012 해외교류전시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200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수도권전시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 2008 <시각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전주문화재단 , 2007 2007-2008 미술작가지원사업, 우진문화재단 **레지던시** nars foundation 뉴욕, 미국(2016), 전북창작스튜디오(2016), 경기창작센터(2014~2015),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1~2012 단기)

박종갑 Park Jong-gab



사방서(四方書) - 생 75×66cm 주철 2024

사방서(四方書)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한글을 집자하여 만든 현대적 조형 작품이다.

전통 서예의 필법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독창적인 시각적 조형미를 드러낸다. 동시에 기운생동(氣韻生動)하는 필획(筆劃)의 강약과 운의 속도감은 유동적 표현을 만들어내고 문자가 지닌 상형성과 추상성으로 현대적 미감을 더한다. 한글의 소리글자적 특성은 추상적 형태로 변주되어 화면에 독특한 리듬감을 부여하고, 나아가 현대미술의 형식언어와 자연스럽게 조우한다.

작품의 구성에서 검정과 흰색의 강렬한 대조를 통해 드러나는 음양의 대비와 방위의 개념은 동양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서예의 기본 획법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문자가 지닌 본연의 의미작용을 넘어서는 순수 조형 요소로서의 확장을 탐구한다.

문자가 지닌 문명사적 함의를 단순한 기호체계의 차원을 넘어 예술적으로 발현시키며 문자예술의 전통과 현대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답습이나 형식적 실험에 그치지 않고, 한글이 가진 조형성과 문자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려는 시도이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국내, 외 개인전 24회 및 기획, 초대전 300여회 참여, 2025 一墨如雷(국립대만사범대학교 덕군화랑)/ 休休마당-한중미술특별전 (울산시립미술관)/BLACK & BLACK(전남도립미술관) 2024 當代韓·中書畵名家展 (서귀포예술의 전당)/ 필+묵, 사유하는 실천(겸재정선미술관)/ BIEAF부산국제환경예술제 '더 나은 미래'展 (갤러리 라함/부산),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대흥사)/ 세계혁명미술전(삼성문화관) , 2022 제주비엔날레(제주도립미술관)/ 막간展(전남도립미술관) ,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홍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0 필묵지간筆墨之間(駐)홍콩한국문화원) 2019 상하이국제종이비엔날레(奉贤博物馆/상해)/ 동경국제展(동경도미술관) **수상** 송은미술상(송은문화재단), 이당미술대상(운보문화재단
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박지예 Park Ji-ye



마주침의 표현 VI 212x150cm 종이(장지)에 채색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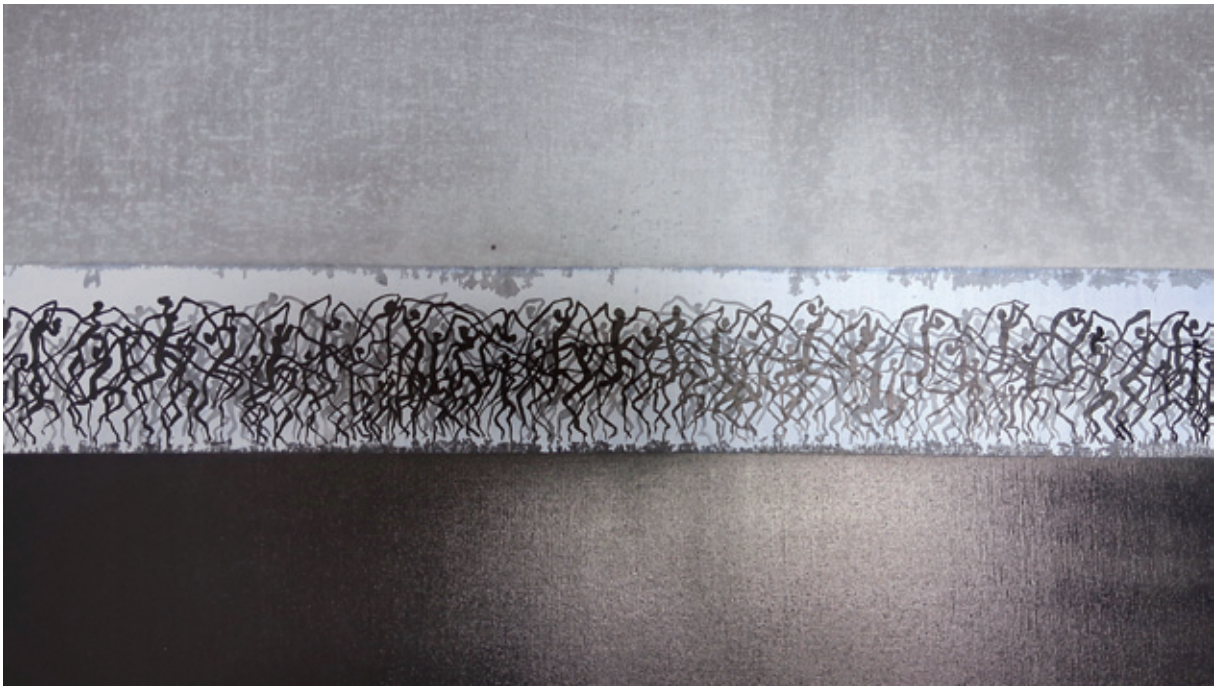
마주침의 표현

이번 작업은 인간과 세계, 그리고 감정이 '마주침'을 통해 연결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표현한다. 눈에 보이는 형태는 내면의 감정이 만든 형상이며, 그 감정은 기억·희망·슬픔 등과 맞닿아 있다. 작업 과정에서 물, 먹, 호분을 사용하여 재료의 우연성과 물성 변화를 탐구하였다. 이들은 서로 밀어내거나 스며들며 화면 위에 예측할 수 없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재료의 관계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상징한다. 색상을 제한하였으며, 이는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전의 「옆집여인」 시리즈가 인물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작업은 외부 세계와 인간의 감정이 마주치며 생기는 내면의 변화를 탐구한다.

결국 '마주침의 표현'은 인간 존재가 타자와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소통하며, 숭고함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시각화한 작업이다.

전북대학원(미술학과 한국화전공) 박사(졸), 원광대.대학원졸(미술대학 한국화전공)
개인전10회, 그룹전 다수
현) 전북대 강사, 전)근현대사미술관 담다(부관장), 국립전주박물관 한국화교실 강사 ,전북대박물관 전문연구원, 전북대 겸임교수, 전북대, 충북대, 원광대강사
E-mail_ pjy7822@hanmail.net

방정엽 Bang Jeong-ye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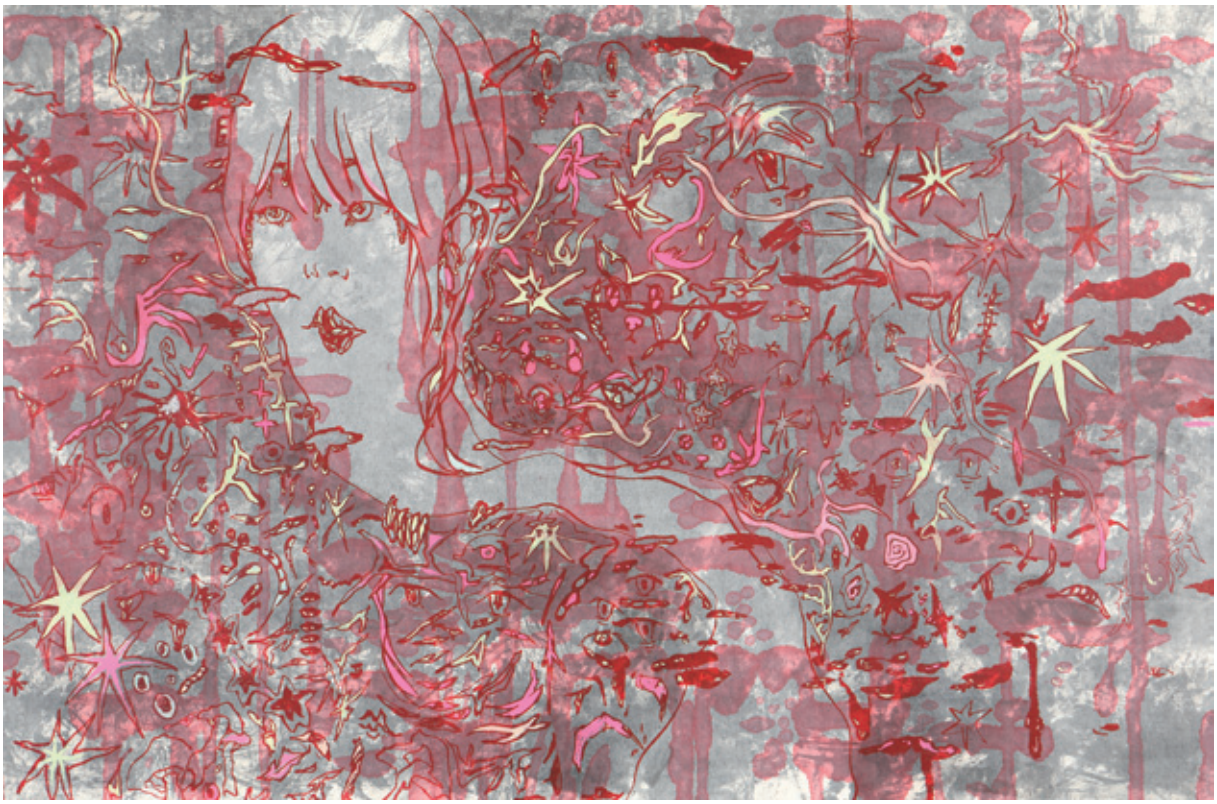


부활의 노래 60x120cm 천+수묵채색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혼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
탐욕과 거짓으로 점철되어가는 사회.
인간이 동물보다 하대받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생명의 부활, 문화의 부활, 인간존엄의 부활 등을 꿈꾸며
일러스트 분위기로 생각을 표현해 보았다.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1회 및 다수의 그룹전과 기획전에 참여함 , 현)한국회화회 회원

손다운 Son Da-un



섬광 65.1x100cm 순지에 주묵액 2025

감정은 짧게 반응한 뒤 곧 사라진다. 생각은 이어지지 못한 채 중단되고, 기억은 조각처럼 흩어진다.

Solo Exhibition 2022 예술공간 결 기획 초대전 '손다운 개인전 [빈자리]'/ 예술공간 결/ 전주, IST SOLO EXHIBITION THE REST OF A FAIRY / 누벨백 미술관 / 전주
Group Exhibition 2024 '지긋-이 3인 전/비화실/ 전주, 세오갤러리 X 화인페이퍼갤러리 '구부러진 미제스의 눈' 기획전/ 세오갤러리 / 서울 2023 한국회화회 정기전/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 서울, W미술관 기획전 사라져가는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 W미술관/ 익산, 2022 함께 바라보다 / 이당미술관/ 군산 제 29회 전북회화전/ 누벨백미술관 /전주 다시 돌아온 봄/ 신공간 갤러리 / 서울, 2021 청목 신예작가 초대전/ 청목미술관/ 전주 젊은 고뇌, 서로를 잇다' 누벨백 미술관 특별전/ 누벨백 미술관/전주 제30회 신예작가 초대전/ 우진문화공간 /전주 FANTASY 2인전/ 누벨백 미술관/ 전주 2020 SWEET AFTER BITTER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

M.P_ 010-3063-5878 E-mail_ ekdnsson20@naver.com

손종민 Son Jong-min



自畵像-Selfportrait 65x53cm Oil on canvas 2025

삶의 여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예술가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직업과 예술 창작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가? 작업은 예술이 삶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의미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며, 예술에 대한 관념의 지평을 넓혀준다. 또한 그림 속에서 우리는 극한 직업을 가진 한 인간의 진정한 내면을 마주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미적 쾌락을 넘어 깊은 공감과 위로로 다가온다.

창작은 직업과 예술이라는 이색적인 틀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술의 원천으로 삼아 진정성 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인 것이며 삶의 무게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전하는 진지한 메시지이다.

동의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個人展 2025 손종민 自畵像-selfportrait展.공감화랑.부산, 2023 손종민 "독백"展. 미광화랑.부산, 2021 손종민 "portraits"展 - 화인 갤러리.부산, 2019 손종민"사람(people)"먹그림展-화인 갤러리.부산, 2019 손종민 "사람"먹그림展- 인사아트센터.서울, 2017 손종민 "사람들" 먹그림展 - 화인갤러리.부산, 2017 손종민 개인展- 남해 바람흔적 미술관.경남 남해, 2016 손종민 먹그림 展 - 해운아트 갤러리.부산 **그룹展** 2024. 한국회화展. -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완주 등 80회
M.P_ 010-7486-1025 E-mail_ yasul2000@hanmail.net

송화정 Song Hwa-jeong



어떤 기억 138x70cm 한지에 수묵 2025

나는 자연에서 받은 영감이나 생명력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작업은 먹을 활용함에 있어 붓질로 표현되는 점, 선, 면 등의 중첩과 번짐 등의 운필에 관심을 두고
대상의 외형을 사실대로 묘사하기보다는 기억으로 남은 느낌을 드로잉하듯이 자유롭게 풀어내고 싶었다.

수묵 작업을 하다보면 끊임없는 사유와 탐색이 이어진다.
어떤 날은 수묵 특유의 물성이 차분하게 마음을 정화해 주지만
어떤 날은 궤도를 탈피하고 싶은 충동으로 비탈진 시간 위에 서 있기도 한다.
그런 시간들이 새로운 도전 정신과 공존하여 나의 표현 영역이 훨씬 넓어지리라 기대해본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2023 동행, 일곱 개의 별 (누벨백미술관), 2016~2025 건지회 정기전시회 (전북예술회관,서학아트센터), 2017~2024 전북회화회 정기전시회 (누벨백미술관.인사아트센터6전시실), 2023 군산대 하모니전 (군산대학교미술관), 2022 동행, 다섯 개의 별 (누벨백미술관) , 2022 다시 돌아온 봄 Group전 (서울 시공간화랑), 2019 '여유 먹빛을 보다' 3인전 (누벨백미술관)
E-mail_ ilikegogh@hanmail.net

오송규 Oh Song-gyu



소요유-몽환 I 126x84cm 화선지에 수묵 2025

수묵을 통한 흑백의 단순한 색채대비는 고요한 자연의 풍경을 담고 있으며 어둠 속의 평원과 숲의 실루엣, 그리고 구불구불한 흰길이 이어져 있다. 이길은 내 삶의 길이자 살아온 길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을 상징한다.

하늘 전체는 중,담묵의 세밀한 점과 질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밤하늘의 별빛을 연상시키며 우주적인 공간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중심 위쪽에는 푸른 지구의 모습을 배치하여 자연과 우주 인간 존재의 관계를 암시하는 상징적 구도를 만들고 있으며 화면에 나타난 소요하는 하얀 새 한 마리는 내 삶의 자유의지를 상징한다.

나는 이러한 수묵의 형상을 통하여 몽환적이며 동양적 환상을 꿈꾼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32회 **단체전** 제27회 베세토미술제베이징 전시(북경민족문화궁전/중국), 청주미술협회 회원전(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청주), 동서미술문화학회 회원전 이미지의 경계 시대와 일상전(한벽원미술관/서울), 2019북경비엔날레, 2019 전남국제수묵화 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2018 몸바이 비엔날레(몸바이/인도), 챈나이 챔버 비엔날레(챈나이/인도) , 한국화-옛 뜰에 서다(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10 부산국제아트페어(부산문화회관), 수묵에 길을묻다(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현)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한국기초조형학회 이사, 동서미술문화학회 부회장, 한국미술협회, 청주미술협회 회원
M.P_ 010-3751-2185 E-mail_ sunve@hanmail.net

윤대라 Yoon De-ra



자비를 베푸소서 각 48x18x5cm 가변설치 mixed media 2023

개인전 15회 기획 및 단체전 250여회, 一墨如雷(국립대만사범대학교 덕군화랑), 필+묵 사유하는 실천(겸재정선미술관), 팔괴완주(복합문화지구누에), BIEAF부산국제환경예술제, 한국회화(블룸비스타호텔), 세상의 모든 드로잉(아터테인), 동시대의민족민중(우진문화공관), 인천 아시아 아트쇼(송도컨벤션센타), 이 땅에 새 숨 展(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세계혁명예술제(삼성아트홀), G20書畵刻 展(일백헌), 필묵지간展(홍콩한국문화원), 한일미술교류전(센다이대학미술관), 아시아-쌀展, 탄생誕生展(양평군립미술관), 전주세계서예비엔날레(한국소리문화의전당), Hongkong Art Work(홍콩), 서울국제아트페어(KOEX), 아트아시아(KOEX),전통과 새 감성展(울산현대예술관), 畵歌-그리기의 즐거움展(한원미술관), 소재와 기법-전통을 보는 눈展(선바위미술관), 정글project, 아시아현대미술교류전(고양 어울림누리미술관), project이름(미국, 홍콩, 태국 등), 근현대미술로 보는 풍자와 해학(알바로시자홀) 등

이승훈 Lee Seung-hoon



여명 68x135cm 지본수묵

만경강 아침 수로(水路)에 빛이 드는 모습을 먹을 풀어서 표현. 일상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전개한다. 특히,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 그러나 때론 힘차게 또는 약하게 흐른다. 개울을 흐르다가도 폭포가 되고 모든 걸 휩쓸고 가는 마력을 지녔다. 강가의 아침은 조용하고 잔잔한 물소리마저 연무와 함께 빛이 버무려진다. 그 순간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수묵이 그 질서를 알맞게 조절해 준다. 시적 이미지와 잘 맞고 역동성을 읽어 낼 수 있다. 물이 변하여 아침 세계를 반영한다고 생각되었다.

전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전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개인전 5회, 전북나우아트, 군산아트쇼 등 다수, 대학 강사 및 대성중학교 교장 역임
한국회화회, 한국미협, 현대미술드로잉회, 전북수묵화회 회원
M.P_ 010-4115-0577 E-mail_ misege@hanmail.net

이지이 Lee Ji-y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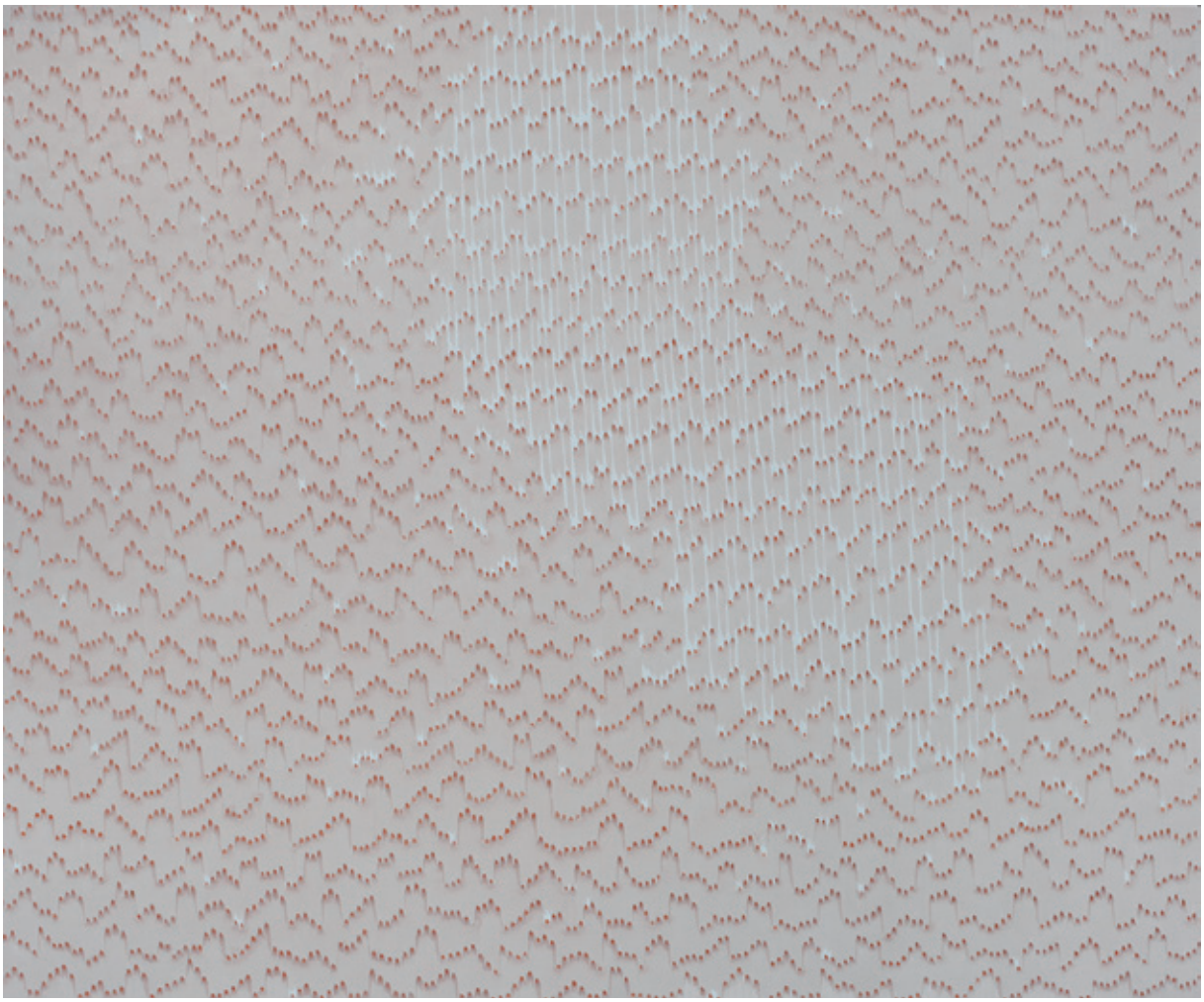


그 깊은 곳에서 N5 116.8x91cm 4합장지에 한지 비단 수묵 콜라주 2025

물 밖의 낯선 풀숲을 부유하는 물고기처럼, 익숙함의 바깥에서 존재의 질문을 되묻는다. 나의 작업은 낯섦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을 응시하며 그것이 품고 있는 깊이와 생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정이다. 풀숲 속 물고기는 결국 어울리지 않음 속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존재 방식을 탐구하는 하나의 은유다.

2023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 박사 (Ph.D), 2016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 석사 (M.A),2010 China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Chinese Painting (B.A)
최근 주요 전시 2025 Pale Fish in a Strange Forest 개인전, onair gallery, 서울, 대한민국, 2025 現代韓國繪畵12人展, 知足美術館, 니가타, 일본, 2025 익숙함을 벗어난 자리, 온에어 갤러리, 서울, 2025 이랜드문화재단x답십리아트랩, 답십리아트랩, 서울, 2025 一墨如雷-2025 後水墨/書寫 國際交流展, 國立臺灣師範大學美術學系 德群畫 廊, 臺北

이철량 Lee Cheol-r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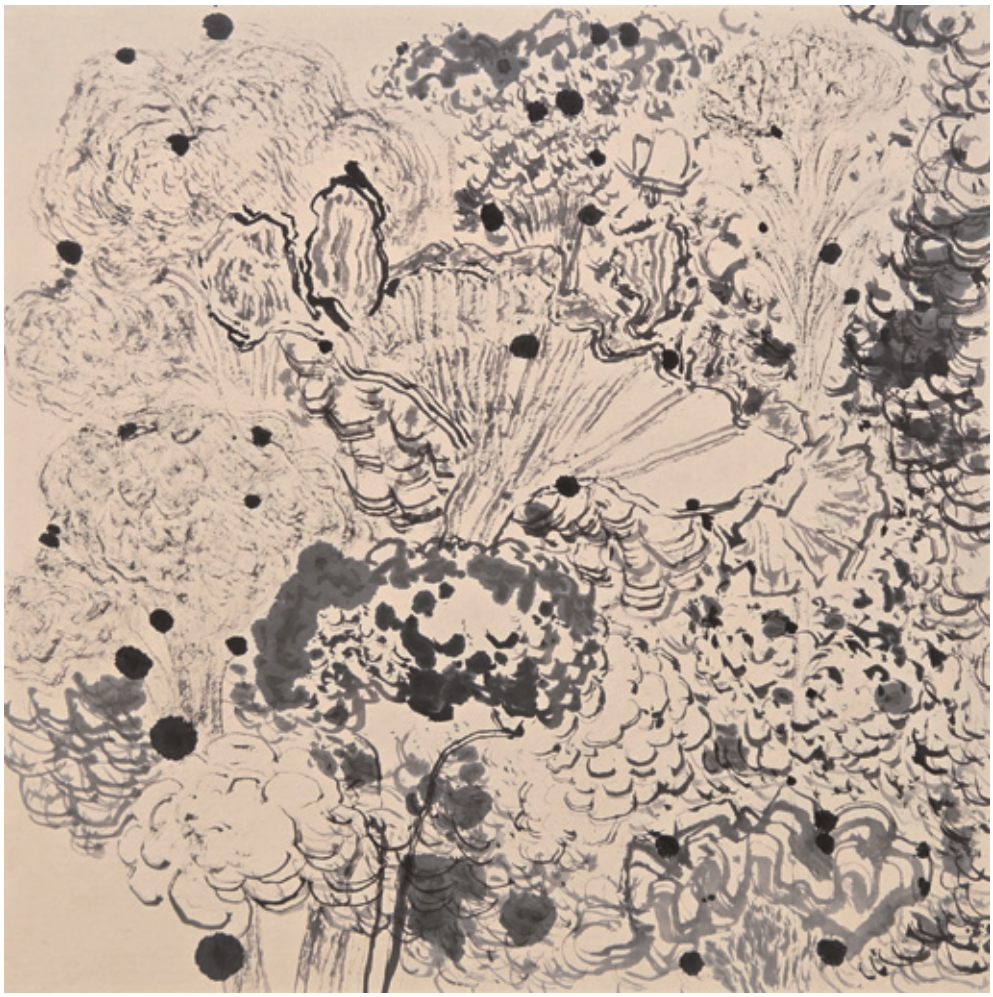


Another nature0787 95x114cm Muk, light color on canvas 2025

보이는 것보다 보는 것은 훨씬 더 아름답다.

홍익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80년대 한국미술(전북도립미술관 2015), HERE NOW(포항시립미술관 2015), 아틀리에 스토리전(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17), 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예술회관 2018)
수묵신작로(광주시립미술관 2020),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1), 필+묵, 사유하는 실천(겸제정선미술관 2024)
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호억 Lee Ho-uk



Cloud Cloud 60.6x60.6cm ink wash on Korean paper 2025

Cloud Cloud

작가는 중앙대학교 한국화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제1회 광주화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OCI미술관, 영은미술관, 아트센터화이트블럭, 성남큐브미술관, 광주은행아트홀, 갤러리조선을 비롯한 대안공간, 미술관, 갤러리에서 기획전과 개인전을 개최했다. 중앙과 지역, 의식과 신체라는 이분법 관념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대, 경희대, 전남대, 성신여대에서 전공 수묵을 강의했으며 건양대학교 교양학부에 재직 중이다.
소장처 서울시, 성남큐브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영은미술관, 건양대학교병원, 세무법인청년들, 갤러리구, 개인소장

임 효 Rim Hyo



시절인연 96x90cm 한지+옻칠 2025

기억층위

유기적선과 추상적 색면이 어우러진 화면위로 생명력이 흐르면 신경세포가 살아나듯 생명의
근원적 뿌리가 緣의 순환이 된다.
인연은 피상의 줄기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시절의 만남이다.
모든 만나야 될 원소적 입자들을 엮어 실줄로 그리다보면 시간과 기억의 층위가 한편의 드라마를 만든다.

개인전- 30회 서울, 부산, 전주, 미국 L.A , 독일 메켈렌부르크,
단체전-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전 (국립 현대미술관개관기획 ,과천), 서울 미술제 (서울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개관기념(한가람 미술관),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국제전**- 바젤,상하이,이스탄블,파리,피아,쮸리히,한국아트페어 등 참가
7회 동아미술상, 13회 선미술상
주요 콜렉션- UN ESCAP, 국립현대미술관, 국립 전주박물관, 서울 시립미술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홍익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한국은행, 한솔문화재단, 금호생명, SK연수원
고은 미술관, 기당 미술관, 서울 삼성 의료원

임희성 Yim Hee-seong



Landscape of life-Layer 91x91cm 엠보아크릴 보드에 아크릴물감 2024

색 조각들이 하나씩 놓이며 일상의 풍경이 형성된다.
나의 작업 방식은 삶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사소한 사건과 순간의 감정, 그리고 오랜 시간과 경험이 쌓여 삶이 형성되듯,
나의 그림 또한 색면의 색감과 형태가 겹겹이 쌓이며 화면을 구성해 나간다.
그렇게 만들어진 화면은
내 삶의 풍경이 색 조각들의 층위로 켜켜이 표현된 결과이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한국화학과 졸업
개인전 2024 Landscape Of Life, 교동미술관, 전주, 2023 Landscape Of Life, 두베카페 갤러리, 완주, 2022 Chance Landscape, 인영 갤러리, 서울, 2018 Family Landscape, 갤러리 밈, 서울/ 교동미술관, 전주, 2014 Playing with Landscape,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2013 Transformed The Landscape II ,스페이스이노, 서울, 2011 Transformed The Landscape,인사아트센터, 서울, 2010 깎여진 산수, 샘터 갤러리, 서울, 2009 Back to the Present, 관훈 갤러리, 서울 **수상 및 지원** 2023 동문창작소 레지던시 지원/ 2020 청년작가 전시 지원금 선정, 전라북도 문화 관광 재단/2019 이 작가를 주목하라 작가선정, 교동미술관/ 2018 신진작가 전시지원금 선정, 전라북도 문화 관광 재단/2016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전북도립미술관 / 2013 송파 예술창작소, 입주작가, 송파구청 / 2012 가송예술상, 동화약품 **작품소장** 전북도립미술관, 교동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반도상사(주), 암웨이, 인영재단, 개인소장50여점
M.P_ 010 4656 7191 E-mail_ iart81@naver.com instagram.com/heeseongyim

정미현 Jeong Mee-hyun



상생 116.8x80cm 천에 수묵 2025

새로운 작업에 대한 몰입과 발현의 시간은 불안의 경계와 설레 임으로 시작된다.

작업의 시간은 깊은 고독과 고립된 망령 속에서 함몰되어 가는 힘든 순간과 만나기도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부정과 화해 그리고 설득하고 설득당하기를 반복한다. 길들여지지 않은 그 어떤 새로운 경이로운 순수의 순간들과 조우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새롭게 날 선 어떤 찰나의 순간에서 두려움 끝에 다가오는 실낱같은 진동이 손끝에 전해져 오며 전율이 일어날 때 그림과 마주한다. 시공의 존재를 벗어나 음률의 흐름 속에서 가슴이 맞닿아 춤을 춘다. 화면 위를 넘실거리며 시공의 존재,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로시 그림을 그린다.

전북대학교 졸업, 개인전 10회 및 다수의 전시 참여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한국현대미술작가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 전환기의 한국화-지성과자각전(서울공평아트센터), 전북미술의 현장전(전북도립미술관), 현대수묵-각양각색전(우진문화공간), 墨香, 먹의 고향에서 피다.(누벨백미술관) , 수묵 동행 6인전(아트비트갤러리 서울), 水墨 時色전(전북도립미술관 JMA스페이스서울), 동행, 일곱 개의 별展(누벨백미술관) , 時間(개관10주년 누벨백미술관), 전주국제실크로드미술전(청목미술관)
현) 한국회화회, 건지전 회원
M.P_ 010-3682-3560 E-mail/hyun3560@hanmail.net Instagram/jeongmeehyun21

정진용 Jeong Jin-yong



Melodrama II 162×130cm Kink, modelling paste, glass micro spheres 2025

물과 대면하는 순간의 울림은 지속적이지 않다. 그것은 섬광처럼 왔다 간다. 그것은 또한 판정 이전의 문제다. 우리는 그 울림 속에서 사물과 자아간의 도취내지는 정체(congestion)된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이것은 카오스이자 코스모스다. 분열과 교류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른바 혼돈적 조화(Chaosmos)는 나(ego)와 물(matter) 사이의 간극과 정체가 모호해지는 순간에 일어난다. 마음은 자기로부터 생성되므로 자기와 사물이 일체되는 순간이라든지 자기를 잊는 순간은 마음의 작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순전히 마음 이전의 눈으로부터 울려오는 의식(consciousness)의 정화다. 화가가 감지하는 이 울림의 순간에 자아(atman)는 해체된다. 혼돈의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이 혼돈 속에서 상념(idea)은 없다. 상념은 흔히 분별지가 간섭하게 되지만, 혼돈의 의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미학적 경계를 이룬다. 이미지는 불분명하지만 존재해야 하고, 메시지는 존재하지만 또한 불분명해야 한다.

키아프, 아트베이징, 타이베이아트페어, 아트시카고, 아트마이애미, 아트뉴욕, 아트바젤, 퀄른아트, 취리히페어, 비엔나페어, 뮌헨쿤스트메쎄등 국제아트페어 초대. 당대예술신문 CAN 표지작가. CIGE 33인의 아시안작가.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초대작품추천위원,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1기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4기작가, 출판도시아트플랫폼 1기작가 및 팔복예술공장 1기작가.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초대추천위원, 전북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 광주시립미술관미술상운영자문위원, 화성시립미술관소장작품심의위원, 수묵비엔날레운영자문위원역임 現) 국립전북대학교 미술학과 학과장.

최지우 Choi Ji-woo



온 땅의 주인 (Master of the Whole land) 91x116.8cm Mixed media on canvas

하나님 나라(EDEN)가 큰 주제이다.
한국의 전통그림인 십장생도에서 영감을 받아, 작가는 신과 함께하는 기쁨을 표현하고자 이상세계인 에덴을 묘사한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으로 신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행복이 시작된 공간이다.

작품의 제목은 온 땅의 주인이다. 말씀으로 창조된 지구인데, 먼저 배경은 옻칠을 통하여 부패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지도의 땅은 에덴동산의 모습으로, 과거에 세상을 창조했고 현재 뿐 아닌 미래에도 다스릴 신인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담고 있다.

국립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학사,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누벨백미술관_전주)및 4회, 단체전 30회 , Instagram_ eden_artist_jiwoo



2025 전시 리뷰

27 개인전 - 박종갑
28 개인전 - 이승훈
29 개인전 - 박방영
30 개인전 - 손종민
31 개인전 - 임희성
32 개인전 - 박성수
33 개인전 - 진희란
34 개인전 - 박두리
35 개인전 - 정미현
36 개인전 - 윤대라
37 개인전 - 최지우
38 개인전 - 권기철
39 개인전 - 이지이
40 단체전 리뷰



박종갑展

만경(萬頃) _수묵여정(水墨旅程)

일정: 2025. 1. 1 - 2. 10.

장소: 전주현대미술관

박종갑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수묵의 언어로 사유한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의 묘사를 넘어, 현대인이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결을 되찾고자 하는 예술적 명상이다. 먹의 농담과 여백은 자연의 호흡처럼 화면 위를 흐르며, 생명의 리듬과 존재의 고요한 떨림을 드러낸다.

나무와 강, 빛의 흔적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한다.

작가의 작업은 천인합일(天人合一)과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정신 위에 서 있다. 그는 물질문명 속에서 불안정해진 인간의 내면을 먹의 흐름 속에 담아내며, 자연의 재현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회화'를 구현한다.

그의 수묵화는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인간의 길(人間之道)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사유이며, 삶의 균형과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승훈 초대展

삶의 틈에 피는 행복전

일정: 2025.1. 1. -1. 31.

장소: 공간 쉼표 2층



보성차밭이 보이는 카페에서 130.3x162.1cm 지본채색

어둠에 막막해도 별빛은 내려오고
메마른 보도블록에 새싹은 움트고
외딴섬 악천후에도 푸른 솔 자란다

찬 눈비 얼음골에 견디는 복수초
어려운 시절에도 웃으며 살던 해바라기
외롭게 막다른 벼룻길 찾아오는 달빛이다

지나고 나면 후회 없다는 인생길
인생에서 적막강산에 화양연화가 있듯
어쩌면 기다린 듯 비가 내려 윤택해집니다

밝고 푸른 기운 갖고 다짐하는 을사년 새해
자연이 주제인 그림을 보면서
새로움을 마음의 바탕에 심어봅시다.
삶의 틈에 행복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화영무접 134x165 한지위 혼합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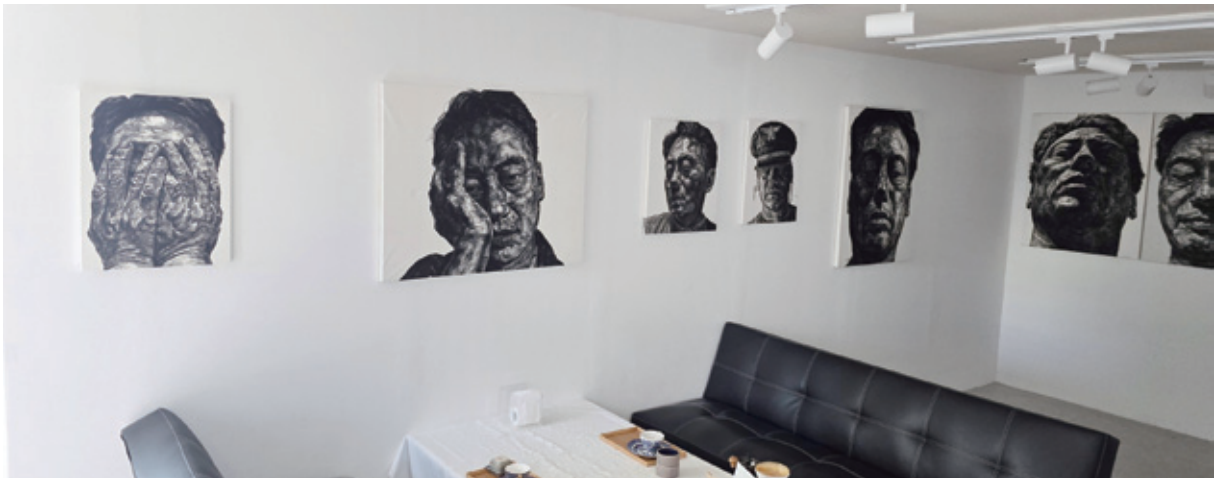
박방영展

말을타고 꽃밭가니

일정: 2025. 2. 27 - 4. 10.

장소: 아트큐브 2R2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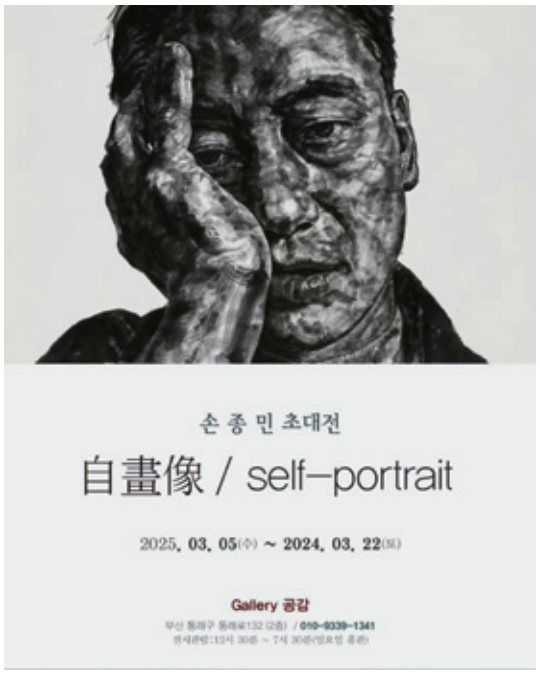
自畵像-selfportrait 65x53cm Oil on canvas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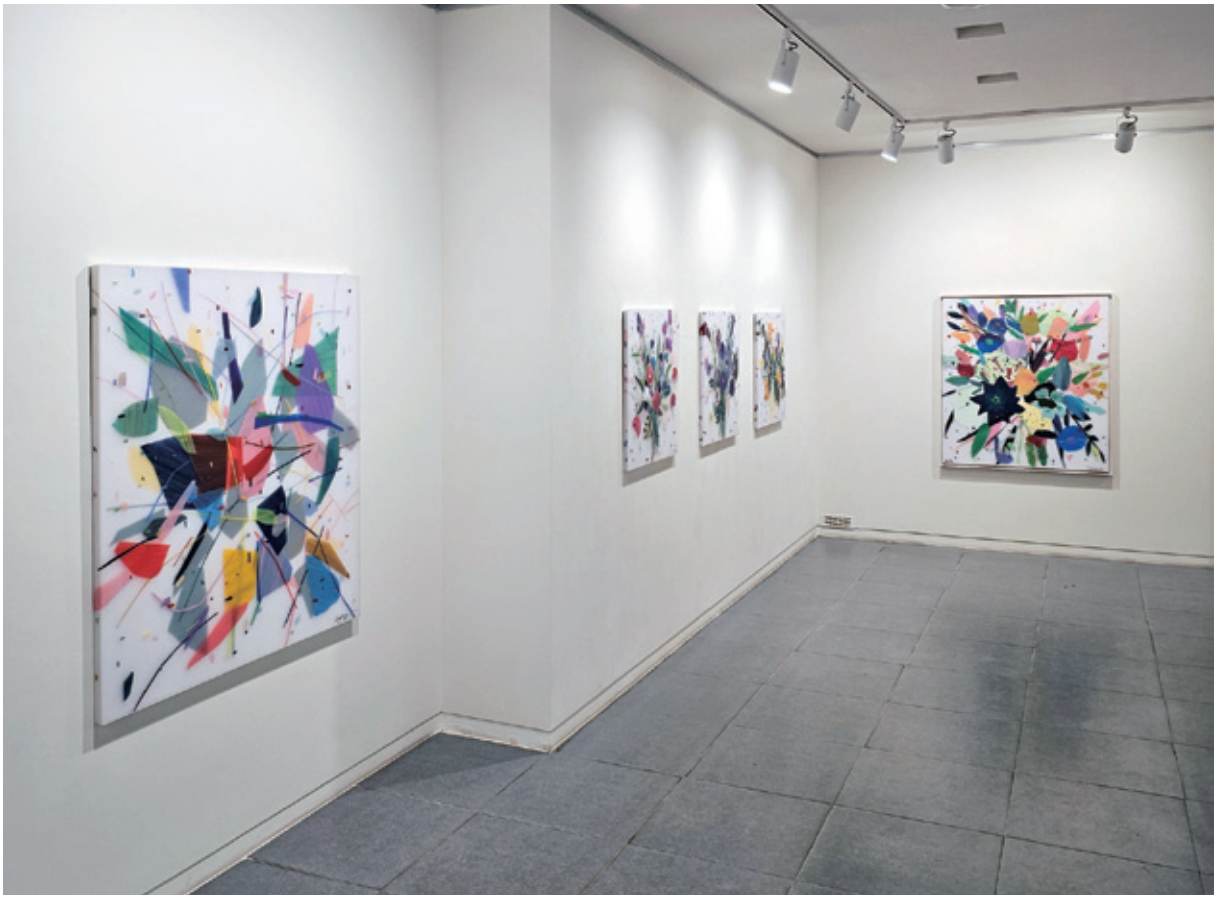
손종민展

自畵像 - Selfportrait

일정: 2025. 03. 05 - 2024. 03. 22

장소: Gallery 공감





임희성展

Landscape of Life

일정: 2025. 4. 7. - 4. 25.

장소: 숨 GALLERY

임희성 작가의 개인전 'Landscape of Life'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gallery숨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gallery숨의 기획 전시 'I see you'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작품을 통해 작가와 관객이 서로 시선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다.

임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색 조각들을 하나하나 쌓아 일상의 풍경을 표현한다. 그의 이러한 작업 방식은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에서 유추했다.





교동미술상은 2011년'젊은 미술전-이 작가를 주목하라' 전시에서 출발하여 청년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그 지원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더 많은 세대의 작가들이 그들의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후원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장년부문과 청년부문으로 나뉘어 수상작가전이 열리며 오픈식에는 교동미술상 수상제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동미술관의 개관 18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로 개최되었다.

박성수展

영겁의 생_교동미술상 수상작가전

일정: 2025. 04. 14. - 04. 27.

장소: 교동미술관





아트레온 갤러리 선정작가전

진희란展

山路妙寫 산로묘사

일정: 2025. 04. 24. - 05. 14.

장소: 아트레온 갤러리

산에는 여러 길이 있다. 나무와 바위가 이어지는 길이 있고, 바람과 물이 흐르는 길이 있으며, 과거와 현대의 사람이 오르던 길이 있다. 이 모든 길은 산의 역사와 흔적이 되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했으며, 산에 대한 모든 이들의 추억이 되어줬다.

오르기 전 산과 오르고 나서의 산은 나에게 전혀 다른 인상을 남긴다. 산을 오르면서 하얀 실과 같은 길은 선명해지고, 봉우리 하나하나가 친숙하게 다가오면서 내 안의 산은 점차 넓어지고 깊어져 간다. 이러한 산은 나에게 더욱 특별해지며, 잘 엮인 실타래처럼 조밀한 풍경이 되어 심중을 가득 채운다.

산길을 따라 골짜기와 정상을 오가며 산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체험은 감격을 넘어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산의 경외감과 친숙함이 동시에 다가오는 가운데 새삼 실감되는 것. 산에 대한 진솔한 시선과 애정으로 산의 길을 묘사(妙寫)하여 심산(心山)을 쌓아간다.



박두리展

하염없는 바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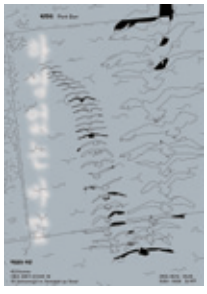
일정: 2025. 05. 13. - 0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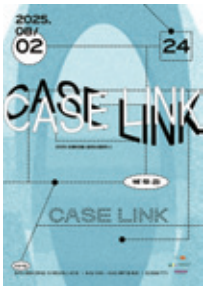
장소: 팩션 Faction

Case Link

일정: 2025. 08. 02. - 08. 24.

장소: 오분의일





<하염없는 바깥>은 언어의 한계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도 끝내 외부로 나아가려는 부단한 시도를 누수로 인해 천장 텍스 타일이 무너진 개인적 경험을 통해 풀어낸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축적되어 만든 틈과 침묵이 밀어낸 균열은 폐쇄된 세계를 형성해온 구조물을 붕괴시킨다. 주관적인 인식 속에서 형상화된 천장 텍스의 갈매기 무늬는 현실의 감각을 소환하는 상징적 통로로 작동한다. 오에 겐자부로 (大江健三郎)의 『개인적인 체험』(1964)에서 주인공이 겪는 정신적 충격과 내면의 균열, 그리고 그로 인해 갑작스럽게 열린 세계인식의 전환을 "그는 머릿속 어딘가가 푹 꺼지고, 그 꺼진 자리에서 다른 빛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별들이 떨어지는 듯한 그 이미지 앞에서 그는 잠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표현한다. 믿어 의심치 않던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은 시도때도없이 찾아온다. 천장 텍스 타일이 무너지고 작은 틈이 만들어낸 균열 속에서 다른 빛이 쏟아지고 회피하거나 혹은 무관심했던 다른 세계가 문을 두드린다.

한지 위에 겹겹이 쌓아 올린 화면과 겹쳐진 이미지들은 중첩을 통해 소멸을 보여준다. 끊임없는 중첩 속에서 내부로 밀려들어가는 이미지들은 작가가 비유적 장치로 실재를 다루는 태도를 보여준다. 작가는 천장 타일이 무너진 경험을 시발점으로 연속되는 씬(scene)들을 정리한다. 회화가 진행되는 동안 서사는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 이들은 모체에서 끊임없이 분화하고 확장되며 작가는 이 유기체적인 서사들을 스크립터 역할을 자처하며 회화로 기록한다. 스스로 성장하여 하나의 장면으로 고정되지 않고 접히고 쌓인 이미지들은 무너졌기에 열린 자리, 지워졌기에 남은 장면을 드러낸다. 그리고 끝내, 내부의 침묵이 바깥을 열어젖히는 순간에 이른다.



강태환 색소폰 프리뮤직 & 정미현 수묵드로잉

정미현展

강태환 색소폰 프리뮤직 & 정미현 수묵드로잉

일정: 2025. 6. 6. - 6. 12.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和"-相生은 모든 존재의 얼이 어울려 조화와 상생을 이루어 가는 미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水墨은 자연과 음률이 지닌 고요함과 역동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수묵 그림을 통해 그 질서를 이해하고, 큰 어울림이 되어 깊은 울림으로 발현되는 수묵의 은유로 화답하였다.



상생 91×116.8cm 캔버스에 수묵 2025

윤대라展

『양생원과 비키니소다』

일정: 2025. 5. 17. - 7. 8.

장소: 삼례문화예술촌



반려묘 '양생원'과 상상 속 자아 '비키니소다'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가를 비추는 거울이다. 성별이나 규범, 고정된 역할로부터 벗어나 상상력으로 비상하는 '비키니소다'는 전형적인 '힘'의 이미지를 유쾌하게 전복하며, 근원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환기시킨다. 반면 '양생원'은 2014년 완주로의 이주 이후, 자연 속에서 작가와 함께 살아온 고양이로서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와 감흥을 대변한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반려동물의 의미를 넘어, 작가의 정서와 세계를 감각하는 하나의 통로이자 또 다른 자아로 기능한다. 작가의 은유적 구조 속에서 비키니소다가 '자유롭게 비상하는 내면의 힘'이라면, 양생원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애정'이다. 이 전시를 통해 작가는 우리 안에 숨은 가능성, 함께 살아가는 기쁨, 자아와 타자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2025 대라쑈』

일정: 2025. 8. 22. - 8. 30.

장소: 사용자공유공간 plan C



〈대라쑈〉는 작가의 시각 조형물과 '소원첩 퍼포먼스'라는 독자적 의례 형식을 결합한 복합적 전시다.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유쾌한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작가는 일상과 기억, 놀이와 기원을 교차시키며 '기복(祈福)의 마음'이 머무는 장을 마련한다.

소원첩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불안과 소망을 담아온 성스러운 기호인 동시에 민간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실용적 도구다. 작가는 이 이중적 상징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성(聖)과 속(俗)이 유동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시각화한다. 퍼포먼스 속 부적은 전통적 신비를 해체한 뒤 유희와 쇼의 언어로 재구성되며, 관람객은 이를 통해 해방감과 안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대라쑈〉는 신비적 의례, B급 감성의 쇼, 현대미술의 개념성이 뒤섞이는 독특한 혼종성의 장이다. 윤대라는 무겁지 않게 그러나 결코 가볍지만은 않게, 인간 존재의 근원적 바람과 감정들을 환대하는 방식으로 불러낸다.



Haksan of Eden 53.0x65.1cm Mmixed media on canvas

최지우展

EDEN : 일상의 행복

일정: 2025. Summer in

장소: 모다아울렛

김제 모다아울렛 신관 2층 이벤트 홀에서 [EDEN : 일상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작가의 그림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며 한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일상 속 장면, 무릉도원 같은 이상세계, 작가가 존경하는 고흐의 작품을 오마주한 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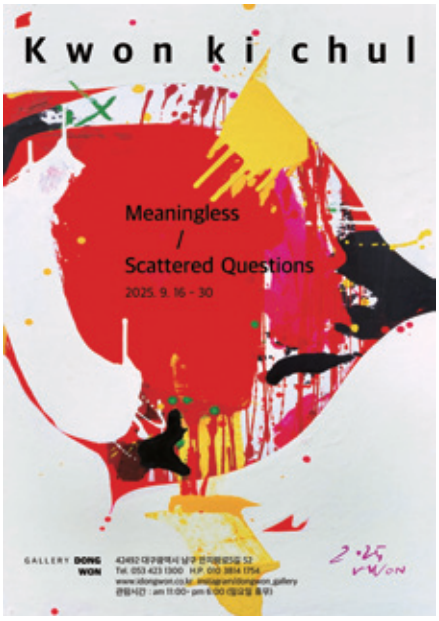


권기철展

Meaningless / Scattered Questions

일정: 2025. 9. 16. - 9. 30.

장소: GALLERY DONG WON





낯선 숲의 물비늘 N5 133x166.5cm 캔버스에 한지 수묵 콜라주 2025

이지이展

Pale Fish in a Strange Forest

일정: 2025. 10. 28. - 11. 9.

장소: Onair Gallery



숲은 고요하지만, 그 속을 떠도는 물비늘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한지 위에 번진 먹빛의 얼룩은 깊은 물의 결, 혹은 길을 잃은 감각의 흔적들이 겹겹이 쌓인다. 그 안에서 멍청하게 벌린 입, 생명을 잃은 눈깔의 물고기들이 흩어졌다 모이며, 낯선 세계를 향해 헤엄쳐 나간다.

또 숲은 언제나 길을 잃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장소다. 작가가 펼쳐낸 낯선 숲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내면의 기억과 감정을 흔드는 미지의 장(場)이다. 그 속을 유영하는 물비늘들은 관객에게 무언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Pale Fish in a Strange Forest> 전시는 낯선 숲,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피어나는 '낯섦의 감각'을 응시한다. 하얗게 떠오른 물고기의 형상과 흩날리는 대나무 잎들은 익숙한 풍경 속에 숨어 있던 불안과 고독,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의 기척을 드러낸다. 물고기는 때로 투명한 흔적이 되었다가, 다시 떨림과 움직임으로 살아나며 시선을 붙잡는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존재의 연약함과 아름다움이 교차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물비늘처럼 흩날리는 감각의 파편 속에서, 우리는 결국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숲과 마주하게 된다.



Soul and Spirit 2025. 1. 1. - 1. 6.



개관기념 24인 초대전 2025. 2. 15. - 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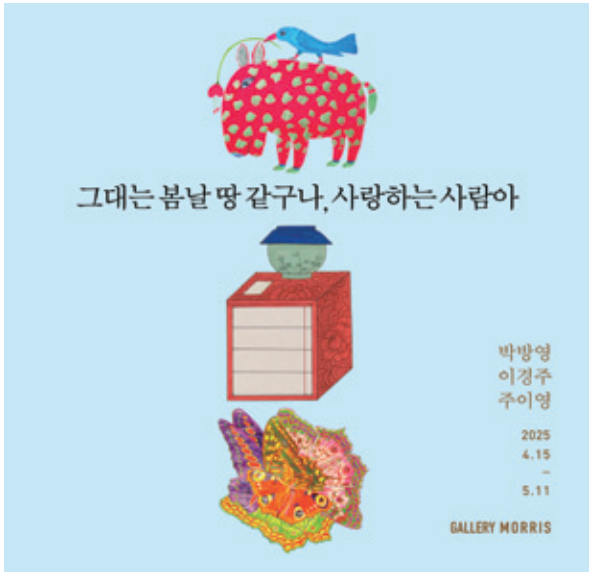
한·중 미술 특별전 <휴휴休休 마당> 2025. 3. 6. - 6. 15.



민화, 힙하다 2025. 6. 5. - 6. 17.



International Recycling Story 2025. 6. 25. - 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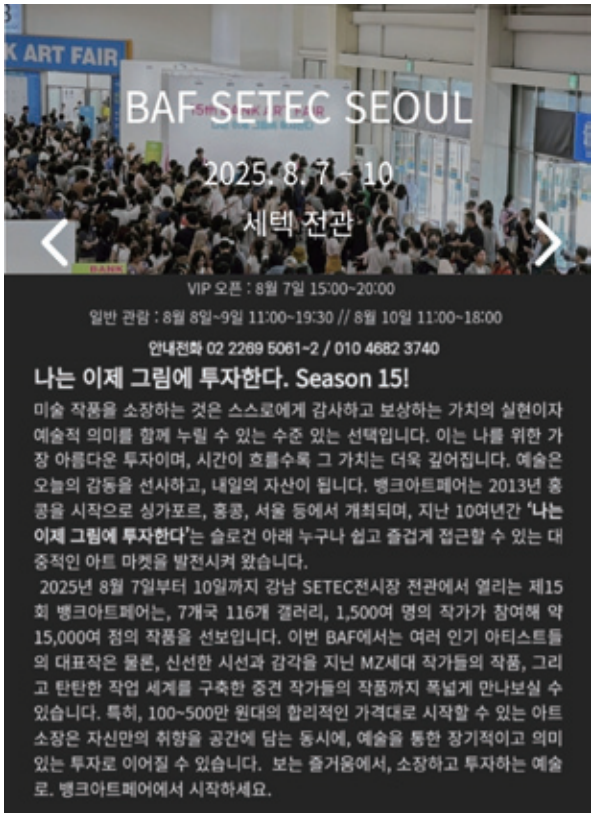


그대는 봄날 땅 같구나, 사랑하는 사람아 2025. 4. 15 - 5. 11



墨如雷-2025後水墨/書寫 國際交流展 2025. 8. 16. - 8. 28.

참여회원 : 이철량, 박종갑, 윤대라, 정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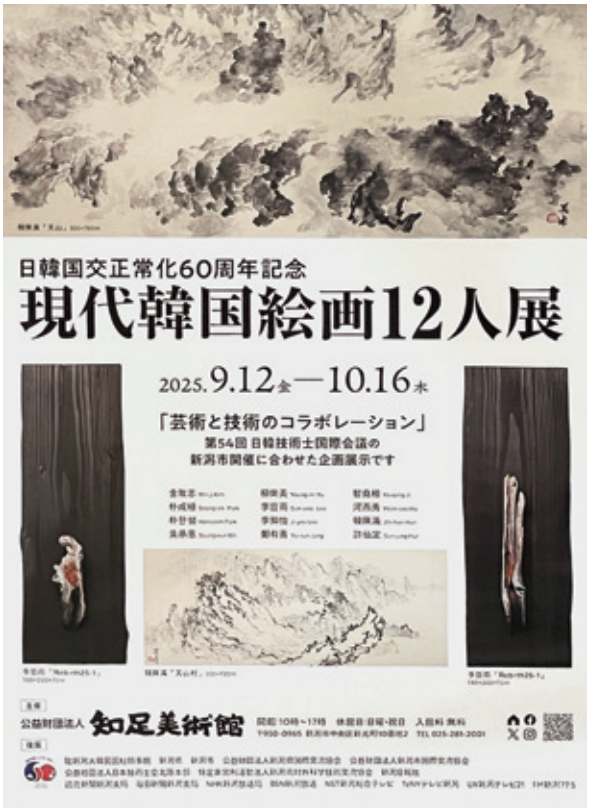
BAF SETEC SEOUL 2025. 8. 7. - 8. 10.



이랜드문화재단X답십리아트랩 2025. 8. 29. - 9. 11



익숙함을 벗어난 자리 2025. 9. 10. - 9. 20.



現代韓国繪画12人展 2025. 9. 12. - 10. 16.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기념 2025. 9. 16 - 12. 14.



둔주 : 그림자가 된 전통 2025. 9. 20. - 12. 20.



아아! 동양화-영원한 파라디소 2025. 9. 25 - 11. 30



作作하다 2025. 10. 1. - 10. 12.



파아이 : 물질 연습 2025. 10. 17. - 11. 2.



녹아내린 모든 견고함 2025. 10. 30. - 11. 23.



2025 특별 기고

45 이슬기 - 다층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미술관 교육 :
'킹콩(King-Kong)'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

48 정진용 - '전주, 다시 호남의 중심으로'의 미술적 실현을 위해

56 강경석 - 전시탐방 허백련상 수상기념전 작가 이철량 소개

58 조재휘 - 작업실 탐방, 장영애 작가

60 차세대 작가를 바라본다. 1.서재이 - 전북대학교

61 차세대 작가를 바라본다. 2.우이진 - 경희대학교

62 차세대 작가를 바라본다. 4.정지용 - 충북대학교

63 차세대 작가를 바라본다. 3.정희정 - 중앙대학교

64 한국회화회 발자취

다층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미술관 교육: ‘킹콩(King-Kong)’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

이슬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학예연구사)

목 차

1. 서론
2. ‘킹콩’ 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대상
3. 경계를 넘는 통합적 접근의 효과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 서론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교육 기관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여전히 참여자의 연령, 능력, 사회적 배경에 따라 분절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유아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설계되면서 세대 간, 계층 간 소통과 연대의 기회는 제한적이다. 이는 미술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보편성과 포용성에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1]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예술 교육 ‘킹콩(King-Kong)’ 프로그램[2]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생애주기와 사회적 배경이 다른 다층적 참여자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킹콩(King-Kong)’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층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미술 교육의 가능성과 의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2. ‘킹콩’ 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대상

2.1. ‘다양한 콩이 모여 커다란 콩이 되는 킹콩(King-Kong)’의 개념 및 활동 내용

‘킹콩’ 예술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콩이 모여 커다란 콩이 된다”는 스토리텔링을 중심축으로 설계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콩의(이하 ‘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서사는 개별 존재의 가치와 집단적 연대를 동시에 강조하는 은유로 기능한다. 작은 콩 하나하나는 다양한 참여자 개인을 상징하며, 이들이 모여 만드는 큰 콩은 공동체와 사회적 결속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주제를 통합예술[3] 활동을 통해 구체화하며, 참여자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따라 교육 방법과 매체를 차별화한다.

도 입(5분)	전 개	마 무 리(10분)
· 인사 · 안전교육 · 수업 안내	▶ · 몸으로 알아가기 · 스트링아트 · 손바닥 그리기 · 실굴리기(주고받기) · 협동 작품 완성	▶ · 작품감상 (이야기나누기) · 노래하기(호흡정리) · 소감 나누기 · 인사

1)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미술관으로 2018년 3월 개관하였다. 이후 2023년 12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콩이라는 명칭의 교육동을 개관하여 다양한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ttps://www.namwon.go.kr/nkam

2) ‘킹콩 I (King-Kong)’ 프로그램은 2024년 9월~12월까지 14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17회에 걸쳐 아동부터 성인까지 229명이 참여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후 2025년 3월부터 ‘킹콩 II (King-Kong)’를 운영 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2024년 ‘킹콩 I ’에서는 전통놀이 비사치기를 활동 주제로 삼았고, 2025년 ‘킹콩 II ‘에서는 실굴리기 활동을 주제로 한다.

3) 통합예술에 대한 정의로 백령의『통합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에 책에서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융합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백령. 『통합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단일한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참여자별로 접근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4]

아동은 촉각적 재료 탐색과 놀이 중심 활동으로, 청소년은 친구들과 협업 활동으로, 장애인과 치매노인은 감각 자극과 정서적 교감 중심으로 각각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2.2. 다층적 참여자 구성

킹콩'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생애주기 전반과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남원지역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과 같은 아동·청소년층, 발달장애인 및 신체장애인,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러한 구성은 미술관 교육이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예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돌봄 제공자인 요양보호사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닌 학습 주체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돌봄 노동자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들이 습득한 교육 경험이 일상적 돌봄 현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아동이 동일한 주제 아래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연대를 경험하는 교육적 장이 형성된다.

3. 경계를 넘는 통합적 접근의 효과

3.1.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보편적 주제

'

킹콩' 프로그램의 핵심 강점은 생애주기의 특정 시점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의미를 갖는 보편적 주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실뭉치를 굴려 주고 받으며 현재 활동자의 기분 또는 작업 과정에 돌출된 공통 관심사 등 개인적인 기호또는 공통의 관심사로 수업과정을 이끌어 가기도 한다. 자신의 손바닥을 그린 출발점에서 실을 서로 주고 받는 연속적 행위가 아동의 또래 관계, 청소년기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 성인기의 공동체 참여, 노년기의 존재가치 재확인 등 각 생애 단계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수용된다.

유치원생에게 실굴리기는 친구와의 협력하는 놀이로 체험되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치매노인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집단의 일부이며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정서적 경험이 된다. 장애인에게는 차이가 배제의 근거가 아닌 다양성의 요소로 인정받는 순간이 된다. 이처럼 동일한 주제가 참여자의 생애 맥락에 따라 고유한 의미로 내면화되면서,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적 체험을 넘어 각자의 삶과 연결되는 교육적 깊이를 획득한다.

3.2. 사회적 장벽 해소와 공동체 형성

'킹콩' 프로그램은 나이, 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사회적 경계를 가시화하지 않고, 참여자 모두를 동등한 창작 주체로 위치시킨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된 공간이 아닌 같은 주제 아래 각자의 표현 방식으로 작업하며, 치매노인과 유아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같은 재료로 작업한 결과물이 하나의 전시로 통합될 때, 차이는 결핍이 아닌 고유성으로 재해석된다.

---

4) 예를 들어 '킹콩 II' 수업 과정의 '몸으로 알아가기' 활동에서 아동 및 청소년은 활발한 신체 활동을 바탕으로 적극적 자아 표현을 하는 반면, 거동이 불편한 치매 어르신과 장애인은 자리에 앉아 손짓, 발짓, 얼굴 표정으로 표현한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제공, 2025.09.(사진 1)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제공, 2025.09.(사진 2)

관계로 전환된다. 이는 미술관이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위계와 편견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실천적 장소임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콩'이라는 은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공동체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타인의 기여 역시 동등하게 가치 있음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술 교육은 기술 습득을 넘어 사회적 감수성과 연대 의식을 함양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4. 결론 및 제언

'킹콩' 프로그램은 생애주기와 사회적 배경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 미술 교육이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다. 단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층적 참여자를 포괄하는 설계 방식은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존중하는 균형을 이룬다. 이는 미술관 교육이 특정 집단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모든 구성원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공공적 실천임을 입증한다.

이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보편적 가치를 담은 주제는 연령과 능력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차이를 분리의 근거가 아닌 다양성의 자원으로 인식할 때, 미술 교육은 사회통합의 실천적 도구가 된다.

셋째, 돌봄 제공자를 포함한 주변화된 집단을 교육 주체로 포함하는 것은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는 실천이다.

향후 미술관 교육은 '킹콩' 프로그램과 같은 통합적 모델을 확산시키고, 경계를 허무는 교육적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실험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콩들이 모여 큰 콩이 되듯, 개별 참여자의 고유한 경험들이 모여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문화예술 교육의 장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백령. 『통합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5.
2. https://www.namwon.go.kr/nkam(검색일: 2025.10.01.)

‘전주, 다시 호남의 중심으로’의 미술적 실현을 위해

정진용(Ph.D. /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학과장)

전주 시립미술관이 끝내 무산? 반려? 연기??? 어찌되었다나 뭐라나... 지난 수년동안 미술전문가들 불러서 들썩들썩하게 분위기만 잡더니 이게 뭔 날벼락인가? 대한민국 미술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다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팽 당해도 되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 전북의 미술단체나 언론등 누구도 이 문제를 성토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인가 자격미달인가. 이곳 전라북도에 미술판이란게 있긴 한것인가.

광주비엔날레. 수묵비엔날레. 아트광주. 디자인비엔날레. 하다못해 수천만원짜리 광주화루. 광주신세계미술제까지 전라도의 모든 미술 인프라는 전남광주가 싹쓰리해 놓고도 그들은 늘 배고프다 아쉽다 말한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서예비엔날레만 겨우 유치하고 있는 처참한 전북전주미술계의 현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려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대학에서 예비미술가를 키워 내보내도 이 동네에서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서울 경기 인천 김해 창원 일산 해남에서 온 아이들은 학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란 말인가. 현실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면서 인구유입을 논하고 지역소멸을 걱정하는가? 전남광주는 수십년간 미술문화의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해 나갔건만, 여기에서는 이제 사 다 되어가는 밥에 재가 뿌려져도 그것을 그냥 퍼먹으려는 것, 과연 왕족과 양반의 인심이란 이러한 것인가...

위는 9월 16일자로 저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조의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 전북의 미술계 현실과 전남에 편향밀집된 미술인프라와 비교견적을 논하고 심각성을 알리고자 올렸습니다. 이어지는 글은 작년 전북예총 30주년기념 행사장에서 제가 상기의 제목으로 발제한 원고를 마무리만 각색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일시적인 행사에 쓰여지고 사라질 논조가 되기엔 제 공력이 많이 소모되었고, 또한 우리 전북미술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제 생각이 가감 없이 드러냈다 자평하는 이유로, 이렇게 한국회화지면을 통해 재 소개합니다. 이제 어디선가 누군가는 읽어 볼 글을 다시 펼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술에 “과거와 현재가 따로 없고,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의미없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인류의 긴 시간 속에서 미술이 늘 동일한 인식지평에서 평가되어 왔을까요? 혹여 휴머니티의 역사 속에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각설하고 만일 피카소가 중세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쓰레기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선과 김홍도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조선 초기에 태어났어도 그리 높이 평가되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술뿐 아니라 음악도 무용도 각각 그 시절의 감수성이 있고, 그 시대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대상이자 시대정신이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간으로 말하자면, 예컨대 워홀의 먼로시리즈가 국립박물관에 소장될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겠지요. 물론 고려청자가 MOMA에 등장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듯 미술은 시간과 공간에 적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이 모든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여 미술학적으로, 또한 미학적으로 초월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허세이자 오만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창작의 자유가 사회공동체의 가치규준을 넘어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같은 것 말이죠. 이번 광주비엔날레에 유명배우와 함께 마약을 흡입한 91년생의 젊은 작가가 버젓이 무려 일천만원의 제작지원을 받고 전시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은, 현대미술계의 정신적 해이(moral hazard)와 창작의 자유 사이에서 고민할 문제들에 우리를 다시금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정과 존중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소수자, 약자로 규정된 집단의 개인성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대중의 공리로 강요되는 시대 속에서, 부덕과 몰염치가 문화예술의 기능에 편승하거나 기생하는 현상은 우리 문화계에서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해당 작가가 성소수자로서 퀴어를 선언한 것이 모든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와 검열사이에서 예술, 특히 미술은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회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최소와 최저수준의

도덕과 윤리조차 부정한 검열로 여겨진다면, 그런 사회에서 다수대중의 판단과 건강한 공공성은 절대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23(04월)	647,306 명	-4,189
2022	651,495 명	-5,774
2021	657,269 명	-163

전주시 인구변화, 통계청(KOSIS) https://kostat.go.kr/unifSearch/search.es

문화예술에 관련하여 휴머니티의 목표가 결정화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작용 반작용의 연속이자, 보류와 진행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문화현상의 어떤 지점에서 무엇이 완전히 옳다 그르다 판정할 수 없으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감정이나 판정들을 강요할 때, 우리는 순수하게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순전히 있습니다.

■ 호남의 중심, 전주는 가능한가?

이제 우리 전북전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미술가치의 판단과는 별개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술문화의 현실은 우리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가치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부족이고, 때문에 구체적 실행을 위한 수렴과 합의의 이정표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표의 부재는 시간낭비만을 낳습니다. 우리는 지금 '버텨온 30년이라는'이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암시를 받고 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고장에서 말 그대로 버텨온 것은 예술만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자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꾸준히 유지하여 온 것은 정치적 문제이므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풍요란 말을 그리 쉽게 거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 풍요롭다면 왜 사람들이 이곳을 떠날까요? 지난해 대부분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무려 4000명의 인구가 우리고장을 떠났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경제활동과 취업, 충족형 생활인프라,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의 부족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극복과 가능성을 찾기 위한 변화를 거부하는 시니어들의 고집들은, 주니어들의 건강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실 겁니다. 인구절벽, 학령인구축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돈으로 출산을 장려하자고 할 뿐, 현재 젊은이들이 살아갈 환경조성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완행열차같은 우리고장의 변화와 발전의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제를 한정하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추진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젊은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판이 우리지역에 깔려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이 전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남광주가 가진 미술관련 인프라는 실로 방대하고 강력합니다. 광주비엔날레, 전남수묵비엔날레,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발, 광주화루, 광주시미술상, 아트광주, 신세계미술제와 같은 대형미술행사와 공모전이 있는가 하면,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관, ACC, GMAP 등, 오로지 미술과 문화행사를 위한 국제적규모의 초대형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시립미술관은 고사하고 비엔날레급 행사라고는 최대 18억 예산으로 진행된 서예비엔날레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2024년 광주비엔



날레 총예산이 알려진 것만 151억, 전남수묵비엔날레의 예산은 54억에 달합니다. 동학을 518과 연결하여 광주시립미술관이 전시추진하고 판소리라는 타이틀마저 광주비엔날레의

슬으로 넘겨줘 버린, 허탈한 전북미술계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모전의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공모전의 위상과 가치는 상금과 평판에 비례합니다. 대상의 경우 광주화루 3000만원, 신세계 미술제(전북전남작가를 대상으로 하다 2022년부터 전남광주출신 작가로 한정하여 진행함)2000만원, 광주문화예술상 한국화, 서양화부분 각 1000만원입니다. 우리전북전주에서 진행하는 미술상은 관급미술상은 아예 없고, 그나마 민간에서 진행하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대상상금 500만원입니다. 이토록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의 말대로 전북은 음악공연에 투자하느라 미술전시는 전남으로 밀어내는 것입니까? 대체 무엇이 전북전주와 전남광주의 미술문화의 역량 차이를 이렇게 벌려놓는단 말입니까.

대학경쟁력의 측면에서 보면, 전남광주는 전북전주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2023년 중앙일보에서 주관한 대학평가를 보면 대한민국 최상위 20개 대학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국립대학은 전북대학교입니다. 탑 20의 자리는 2022년에는 부산대(20위), 2024년에는 경북대(20위)에 자리를 내줬지만, 한반도에서 제주를 포함한 호서남부지역의 지역거점국립대학 중에서, 영동지역을 대표하는 부산대와 경북대를 상대로 국립대 평가서열 1. 2위 다툼을 하는 대학은 오직 전북대밖에 없으며,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종합대학 탑 20에 거론되는 단일의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평가중 가장 공신력있다고 여겨지는 영국의 QS(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 6일 공개한[1] 경북대(101위) GIST(105위) 인하대(116위) 동국대 전북대(각 118위, 이하 동 순위 대학명 나열은 QS 발표 알파벳 순) 아주대 한국외대(각 124위) 건국대(140위) 서울시립대(166위) 충남대(193위) 전남대(200위) 울산대(248위) 영남대(257위) 가톨릭대(265위) 숙명여대(273위) 순천향대(288위) 성신여대(294위) 부경대(299위) 충북대(305위) 강원대(310위) 국민대 서울과기대(각 324위) 단국대(339위) 제주대(359위) 가천대(384위) 경상국립대(388위) 숭실대(431-440위) 광운대(441-450위) 한림대 인천대(각 461-470위) 홍익대(471-480위) 영산대(481-490위) 우송대(541-560위) 인제대 한동대 한국해양대(각 561-580위) 부산외대 명지대(각 601-620위) 조선대 경기대 상명대(각 621-640위) 창원대 군산대 경남대 선문대(각 661-680위) 강릉원주대(681-700위) 동아대 동서대 덕성여대 계명대 서울교대 원광대(각 701-750위) 한국교원대 국립금오공대 경성대 서울여대 순천대(각 751-800위) 안양대 대구대 한남대 한성대 공주대 목포대 삼육대 신라대(각 801-850위) 안동대 대전대 대진대 한서대 건양대 배재대 수원대 용인대(각 851-900위) 청주대 동덕여대 동의대 광주대 호남대 호서대 강남대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상지대 세명대 서경대 동명대(각 901+).

전 세계 4848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전북대는 681~690에 위치하고 전남대와 충남대는 851~900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바로 위로는 한국외대와 서강대, 아주대등 주로 인서울 4년제 주요 사립대학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전북대가 대한민국 거점국립대 중 최상위권에 위치 해있다는 것은 대학교수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학이 만드는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전주로 유입되는 국내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시의 인구유입가능성과 수준에 고려되는 정주여건과 인프라를 말할 때, 전주는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한 천안이나 마산과 합병한 공업도시 창원,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와 공예비엔날레의 성공유치로 비약한 청주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취업일자리와 문화향유의 인프라가 부족하니, 거주환경으로서 매력

---

1) 2025 QS 아시아 대학 순위/ 984개 대학 중 100위권과 그 이하.
경북대(101위) GIST(105위) 인하대(116위) 동국대 전북대(각 118위, 이하 동 순위 대학명 나열은 QS 발표 알파벳 순) 아주대 한국외대(각 124위) 건국대(140위) 서울시립대(166위) 충남대(193위) 전남대(200위) 울산대(248위) 영남대(257위) 가톨릭대(265위) 숙명여대(273위) 순천향대(288위) 성신여대(294위) 부경대(299위) 충북대(305위) 강원대(310위) 국민대 서울과기대(각 324위) 단국대(339위) 제주대(359위) 가천대(384위) 경상국립대(388위) 숭실대(431-440위) 광운대(441-450위) 한림대 인천대(각 461-470위) 홍익대(471-480위) 영산대(481-490위) 우송대(541-560위) 인제대 한동대 한국해양대(각 561-580위) 부산외대 명지대(각 601-620위) 조선대 경기대 상명대(각 621-640위) 창원대 군산대 경남대 선문대(각 661-680위) 강릉원주대(681-700위) 동아대 동서대 덕성여대 계명대 서울교대 원광대(각 701-750위) 한국교원대 국립금오공대 경성대 서울여대 순천대(각 751-800위) 안양대 대구대 한남대 한성대 공주대 목포대 삼육대 신라대(각 801-850위) 안동대 대전대 대진대 한서대 건양대 배재대 수원대 용인대(각 851-900위) 청주대 동덕여대 동의대 광주대 호남대 호서대 강남대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상지대 세명대 서경대 동명대(각 901+).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982 2024, 11, 17.

적일 리가 없습니다. 음식과 한옥마을에 치우친 관광업기반의 빈약한 경제구조는 청년인구유입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64만의 지역거점 대도시임에도 시립미술관조차도 없는 현실은 광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미술문화의 인프라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북전주는 다시 호남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

전주는 명실상부한 예향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력한 슬로건들을 좀처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이 모든 영향력을 오로지 먹거리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를 상징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대한민국사람들은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을 비빔밥과 한옥마을로 여길 것입니다. 여기에 물짜장과 초코파이 정도를 더하면 전주의 이미지는 대략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인식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음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 미술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십여년 전 동문사거리 어디쯤에서 열렸던 도시재생발전포럼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미술품이 예술로서 의미를 유지하려면, 그것이 놓여지는 장소, 혹은 공간의 역사성이나 지역성과 별개의 가치로 취급되어져야 한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있는 곳과 보는 것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전주라고 해서 반드시 전통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소재나 물건들을 창작의 조건에 삼투시켜야 한다는 것은, 미술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리를 예술로 대하길 원할 때, 시민관객으로 하여금 지역의 정해진 의미와 가치에 준거해서 거리의 미술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것은 예술이라기보다는 관광상품에 가깝게 여겨질 것이다. _ 미술생태도시로서의 전주/ 2013년 9월 9일

이 의욕적이고 경솔한 텍스트들은 이제 저에게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저는 대학입학을 위해 1991년 서울로 떠났고, 2018년 전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4년의 발표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뵈러 방문하던 고향 전주를 바라보는 관점, 마치 이방인의 시선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2018년에 전주에 전입하고 6년이 지난 지금, 지역의 거리와 미술에 대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술은 시간과 공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미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북전주를 상징하는 어떤 예술형태들이 특별히 고려되고 장려되어야 합니다. 지역특성화의 콘텐츠가 불분명하게 설정되고 기획되어 왔고, 한편으로는 전라도라는 포괄적인 이미지에 빠져 전남광주의 아우성치는 듯한 발전에 대리만족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버텨온 30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미술문화의 관점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문제에 당면하여,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의 평판을 만드는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엄마의 땅"이라 말하고, 전주를 "왕의 도시"로 정의합니다. 어머니와 왕, 이 두 단어보다 벅차고 숭고한 말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땅이자 왕의 도시인 나의 자랑스런 고향이 감내해 온 각종의 저평가들에는 분명 예술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작가의 부재? 미술인구의 부족? 혹은 다각적인 지원제도의 부실? 이 중 어떤 것도 지금 우리지역의 낙후된 미술문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코 관심의 부재는 아닙니다. 다만 도시의 명성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기고 미술이 자력적으로 꽃피우는 환경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아쉽다는 것입니다. 전남광주가 올해 광주비엔날레 15회차 30주년을 기록할 정도로 꾸준히 미술관련 인프라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구축해 올 동안 우리 전북전주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또한 지속해 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 동시대의 한국성.

우리 전북전주를 말하는 '가장 한국적인'이라는 수사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전북대에서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가 열렸습니다. 2024년 22회를 맞은 세계한인대회는 세계각처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사업가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각종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행사였습니다. 당초 인천개최를 낙점했던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가 전북전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국과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일군 한인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경험을 선사하는데 전주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고장은 타지역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뚜렷한 정체성이 있고, 그것은 바로 '한국적인'이란

말과 함께합니다.

한국적, 한국성, 한국미 이런 말들은 우리미술의 차이를 증명하는 매개와 단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대 미술을 왜 12개들이 연필 한 다스처럼 생각할까요. 연필들의 쓰임에 큰 구분은 없습니다. 2B, 4B등 흑심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같은 용도로 취급되는 것이지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연필이란, 우리에게 집히는 대로 그저 필기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현대미술판에서 동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장르탈출 또는 초월을 명분으로 모든 다양성을 물타기하며 싸잡아 판단해버리는 것이지요. 게다가 대부분의 비평에 한국 미학과 미술적 판단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것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미술뿐 아니라 미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양과 서양의 미학, 그리고 한국미학의 코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혹은 서구세계가 쌓아 온 미학적 미술학적 코드가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판단에서 그것을 모든 미술장르에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문화는 그만큼 단순해집니다. 다양성과 특수성이 결여된 문화가 매력적일 리 없습니다. 전주의 식재벌이라 불리는 점포들의 특징은 맛의 통일이 아니라 특수성의 강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전북전주가 지향하는 '한국적인'이라는 말들은, 우리의 동시대미술에서 거대한 줄기가 아니라 한낱 가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보편성과 대중성만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학문적 지표와 성과에 세계의 모든 현상을 믹스하여 해석합니다. 지나간 국제화시대의 정치, 경제, 학문적 오류가 바로 이렇습니다. 보편의 경계에서 소외된 특수한 학문과 예술은 점점 쇠락과 사장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한국성과 한국미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목표들은 대학과 시장의 현장에서 그렇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곳이라는 로컬리티의 캐릭터와는 별개로 전주예고에서 한국화전공의 소멸과 전북대학교 한국화전공의 입결만 봐도, 우리 전북전주가 가지는 한국성에 대한 관심과 의미부여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연필 다스 안에 만년필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연필일까요? 연필이나 만년필이나 모두 필기도구지만 정체성이 달라질 때, 구분은 명확해 지고 의미는 달라집니다. 가치의 명확함은 차이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차이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 미술의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은 동시대 미술의 현장은 흡사 미국과 유럽의 현장을 옮겨다 놓은 듯 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우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우리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면, '한민족'이라는 우리에서 잘 길러져 온 고유의 '한국미' 혹은 '한국성'이 크게 존중받게 될 것이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서양주도의 동시대 문화 속에 물타기 되어, 대충 존재인지 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취급되거나 간혹 이벤트주제로 활용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한류라 말하는 한국주도의 세계적 문화흐름에 우리의 전형이 얼마나 보여 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류라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서양인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해 왔던 서양의 대중문화에서 이름을 날리는 젊은이들이 그저 '한국인' 혹은 '한국인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최근 아파트로 유명한 로제(한국이름 박채영/뉴질랜드출생, 한국과 뉴질랜드 이중국적)는 미국가수 브루노 마스과 협업하여 전 세계에 아파트라는 생소한 단어를 떼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라는 말이 한국에서만 쓰인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문화의 전파의 성공사례가 되는 것인가요? 그들의 패션, 생활, 취미, 취향 모든 것이 미국중심의 서양문화권에서 수백년간 쌓아온 자본주의문화의 강력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한류는 사실 그저 그것에 일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역할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들이 그 증거지요. 그러나 미술은 대중문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설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미술시장에서 어디에 한국미, 한국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주최하는 아트페어의 현장을 뒤덮은 것들은 온통 서양정서라든가 무국적의 현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모택동의 초상화가 시장에서 히트를 치던 시절이 있었지요. 대체 그때의 그 작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작업했을까요? 이제 지금의 작가들은 그들의 그림에 심심찮게 뉴욕과 파리의 풍경들과 백인과 흑인들을 자연스레 등장시킵니다. 흡사 익숙한 서양작가의 그림을 모방한다거나 그 같은 이미지들을 세련되었다거나 현대적이라 평가하는 태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동시대의 정체성이라 평가하지만, 아시다시피 동시대는 결정화된 것이 아닙니다. 동시대미술의 담론은 진행 중이며 진행형의 상태는 결론지어질 수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로제의 아파트에 열광하는 세대에게 굳세어라 금순아 같은 노래들의 가치는 무효할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는 동시대의 관점에서

그간 우리미술이 취급된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특정시대와 세대에게 외면받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인가요? 아무리 거시기 해 보여도 존재하는 어떤 것은 분명 누구에게는 소중할 것이라는 그런 식의 나이브한 갬성이 아니라, 예술의 판단과 비전이 어찌 현재와 미래에만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작 난데없이 인기를 끌더라도, 설령 그것이 글로벌히트를 치게 되더라도 한국사회에서는 우리고유의 가치를 내포하지 못하는 것들이란,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조선시대의 중국모방, 근대이후의 일본모방, 현대사회의 미국모방과 같이 우리는 늘 월드클래스의 잣대를 동시대에서 우리보다 잘 산다는 나라들의 정체성을 모방하는 것으로 삼아왔습니다. 늘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보다 현대적이라 판정하는 나라와 문화를 모방하려는 습성, 그 녹진한 모화(慕華)와 사대(事大)의 태도가 우리정신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것을 말할 때 은근히 감추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와 차이를 좁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차이를 생산하는 입장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우리문화, 또는 우리미술이라는 말은 나날이 불분명해질 것입니다. 굳세어라 금순아가 무시받을 지언정, 아리랑이 외면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북전주의 '가장 한국적인'이라는 슬로건의 이미지를 '금순이'가 아니라 '아리랑'처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년필처럼 좀처럼 쓰이지 않지만 존재감이 분명한 것, 흔하디 흔한 연필묶음에 섞여 있는 보물 같은 '다른 것'을 우리 전북전주는 품고 있지 않습니까.

■ 전북전주의 미술, 한국미의 상징으로.

별로 어려운 이야기 없이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러한 판단과 목표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라북도민이자 전주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만드는 역사성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특별함을 로컬리티의 상징적 시그니처로서 확립시켜야 합니다. 지역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 의미가치는 이것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미술의 목표는 지역을 상징하는 시대성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설정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비교하였던 전남광주의 예를 보십시오. 그들은 수십년 동안 줄기차게 518을 앞세워 사회, 문화, 경제의 영역을 대폭 상승시켜왔습니다. 올해로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30주년을 맞아, 세계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적명성의 초대형 미술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광주비엔날레에 등장하는 주제에는 늘 민중과 혁명과 투쟁의 구호가 삼투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이, 그들은 실로 아시아 최고최대수준의 미술인프라를 구축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전북전주에, 그들이 늘 입에 담는 호남이자 전라도로서 함께하는 부가적 혜택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번 세계적인 미술관계자들이 광주로 몰려갈 때, 우리 전주는 조용한 아침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문득 20년 전, 같은 건물 위아래층을 작업실로 쓰면서도, 기자나 큐레이터 등 미술관계자들이 방문할 때 단 한 번도 저를 초대하거나 소개해준 적이 없는 어떤 대학 선배가 생각나네요. 여하간에 그렇게 우리는 우리만 우리라 여기는 남의 동네잔치판을 구경만 하다가, 급기야 이번에는 전라북도가 자랑하는 국악의 판소리라는 타이틀을 내어주고, 전북이 근원지인 동학마저 518의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동원되었습니다.[2] 전남광주가 이렇게 전라도라는 코드를 자기화시켜 지역문화를 확장시킬 때, 전북전주는 그것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전남지역에서 발행하는'전라도'라는 계간지는 거의 대부분 전남지역의 관광지와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은 가뭄에 싹 나듯 어쩌다 한두 페이지씩 다뤄집니다. 영화판은 또 어떻습니까? 전북지역을 소재로 하는 영화에도 여지없이 등장하는 것은 전남지역의 끈적한 사투리입니다. 대한민국사람 대부분은 전북전주의 사투리가 무엇인지 잘 모를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전북전주를 전남광주에 은근히 흡수시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살아왔습니다. 호남권이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그 광역대의 혜택을 전남광주가 대부분 차지하는 가운데, 전북과 전남의 관계는 전남의 필요와 이익에 우선하는 선택적 우호관계라는 것을 확증하는 기사를 적잖이 접하게 됩니다.[3]

광주의 젊은 작가들과 미술대학생들에게 흔히 칭해지는 말은

2) 필자는 '외세타파 보국안민'을 기치로 내세운 동학정신은 3.1운동에 귀결되는 것으로, '독재타도 민주항쟁'이 구호였던 518과는 시대적 맥락과 혁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 판단한다.

3) 전북보다 지역인재 채용기관이 2배 많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묶는 광역 채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전북 이전기관의 채용규모가 50여 명인데 반해 광주·전남은 350명이 넘을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이미 대구·경북과 울산·경남 등은 광역 채용에 합의해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며 지역인재를 함께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요구에 광주·전남에서 응하지 않으면서 호남권 광역 채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7562 2024.11.28, 전주mbc 강동엽기자.

'비엔날레 키즈'라는 것입니다. 광주전남의 비엔날레 키즈들에게는 비엔날레수준과 미술관작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전주의 키즈들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우리지역의 젊은작가들을 위한 가장 든든한 기관인 전북관광문화재단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창작지원비예산조차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4)]

여러 가지 반성을 하다보면, 우리 전북전주의 미술이 견지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들이 수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감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우리지역의 미술생태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해 왔는지, 오늘처럼 이렇게 몇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는 기록만으로 자족해 오진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반성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먼저 우리지역의 미술문화를 위한 인문사회적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전북전주를 상징하는 미술영역을 정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조선왕조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전북전주의 정체성을, 예술형식과 내용에 삼투시키고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지역의 역사, 사회, 풍토등과 관련없이 현대미술과 동시대를 같이 호흡한다는 명분하에, 무분별하고 무의미한 성과를 만드는 미술전시같은 것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지역을 상징하는 미술문화는, 전북전주의 역사성과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색하고 찾아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험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다채로운 양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미술의 문제를 인구와 경제의 규모에 의탁하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미술행사로 유명한 도시들 중 베니스(27만), 뮌스터(33만), 가나자와(44만)등은 전북전주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소도시들은 성공적인 미술행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끊임없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주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가장 좋은 명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집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전업작가군을 두텁게 만들고, 미술이론가와 기획자, 전문학예사등의 '전문적인' 양성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먼저 대학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지만,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이 고장에서 한국화작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한국화 및 한국미술이론 전문가는 거의 전무합니다. 태조와 동학 등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특유의 문화코드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를 골고루 비벼낼 수 있는 미술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치 비빔밥처럼 전북전주 다운, 오직 전북전주를 상징하는 그런 행사와 전시를 지원하고 지속시켜야 합니다.

전북전주가 경제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낙후되었다 평가받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작은 지원과 작은 전문인구, 작은 이벤트로 거대한 부흥의 효과를 보겠다는 과욕 때문입니다. 투자 없는 성공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지역특유의 미술과 이를 통한 글로컬의 성립은 복불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도전과 투자, 그리고 반성의 데이터가 쌓여 탄탄한 문화역량을 구축하게 된다는 점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전북전주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우리지역만의 가치인프라를 쌓아나갈 때,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성공에 한걸음 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 다시 일어설 10년을 계획하며.

우리가 우리 전북전주의 미술문화를 말할 때, 컬렉터의 부재에 대해 성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미술에 대하여 가치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수집가가 미술작품을 구매하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미술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폴리옥션에서 낙찰되는 국화가격의 수준을 보면 이 점은 분명해집니다.[5)] 우리의 미술품 가격 가치관속에 한국화영역의 가치평가와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시쳇말로 킹 받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대 6대가의 작품조차도 몇백만원에 거래되는 현실입

4) 25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지난 22일 문화관광재단 예산을 심사했다. 요구액이 210억7240만원이었으나 절반에 가까운 87억4780만원이 삭감됐다. 이 중에는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예산' 31억 8200만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예산은 전북지역 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와 성장 도모를 위한 예산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27897 2024.11.26. 뉴스1, 김동규기자

5) 제백석, <송백고립도>, 718억원 / 이가염, <만산홍편>, 534억원/ 반천수, <응석산화지도>, 495억원/ 서비홍, <구주무사낙경운>, 473억원/ 장대천, <발채산수>, 426억원/ 우관중, <사자림>, 190억 / 부포석, <두보시의도>, 150억 등.

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작품성이 동시대 수백수천억을 호가하는 서양의 거장들에 비해 떨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미술에 대해 자해수준의 저평가를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괴스러운 현실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물려줘야 할 위인들의 고귀한 유물에도 여실히 적용됩니다.[6] 컬렉터는 나비와 같고 미술시장은 화단과 같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화단에 나비가 몰려들 리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북전주의 미술판을 제대로 일구려는 미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없이, 그저 무심한 냉소만이 가득하다면 우리고장의 건강하고 희망찬 미술환경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구구절절 밝힌 바를 정리하면, 우리 전북전주의 미술판에 부족한 것은 시간도, 장소도 사람도 아니라, 전문적 미술환경을 구축하는 예술적 인프라 라는 것입니다. 강조하였듯 지역특유의 미술문화판의 정립 없이는, 지역미술계의 부흥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북전주를 말할 때, 즉각적으로 떠올릴 만한 미술형식의 발굴 및 정립과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세계는 글로벌리즘으로부터 로컬리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서울지역, 경기는 경기지역이라 불립니다. 지방과 중앙의 개념은 진즉에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전주시는 광역시도나 합병한 도서를 제외한 일반시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대도시에 속합니다. 2024년 현재 648000여명의 인구는 단일시의 인구로서는 절대 작은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작년에 4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외지로 빠져나갔고, 매년 4000명씩 10년이면 무려 4만명이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이는 어지간한 지방 소도시가 소멸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지하였듯이 전남광주의 경우, 다양하고 충분한 미술인프라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적 혜택이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프로그램에서 광주를 '미식과 예술의 도시'라 표현하고 있군요. 밑도 끝도 없는 자존심이 수틀립니다. '맛과 멋'이라는 도시의 속성은 원래 전북전주의 것이 아니었나요? 위대한 '엄마의 땅'이자 '왕의도시'에 사는 저는, 전남광주에 넘어간 예향의 의미가치들을 전북전주가 다시 가져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북 전주는 전남 광주의 협력업체라던가 2중대노릇이라는 비아냥들로부터 작별할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전라감영의 지역 전북전주가 꿈꾸는'전라도의 수도', '다시 호남의 중심으로'라던가,'가장 한국적인'이라는 구호가 당연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짧은 글로 오늘의 주제에 대한 어떤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이 개인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전주의 예술가이자 미술인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활동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적 위기를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더 많은 미술계의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10년 } 뒤에는 전북전주가 대한민국의 예술거점이자 전통문화의 수도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원합니다.

6) 단례로 안중근의사가 뤼순감옥에서 쓴 마지막 유묵작품 경천(敬天)은 2014년 3월 서울옥션에 추정가 7억에 출품되었고 여지없이 유찰되었습니다. 폴리옥션의 중국 국화작품 낙찰가격대를 보면, 만일 안중근의사가 중국인이었다면, 아마 추정가의 열배가 넘는 70억이상 100억대의 가격에 낙찰되었을지 모른다는 상상이 마냥 헛생각 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의 층위를 더듬는 먹빛 여정
-이철량의《시정유묵(市情幽墨), 지금-여기》

강경석(전남대학교 박사과정 / 미술이론)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이철량의 개인전《시정유묵(市情幽墨), 지금-여기》는 1980년대 한국 수묵화 운동을 이끌었던 작가의 50여 년에 걸친 작업 궤적을 조망한다. 2024년 허백련미술상 본상 수상을 기념하여 기획된 이번 전시는 약 50점의 작품을 통해, 작가가 '먹'이라는 전통 매체를 어떻게 동시대 회화의 언어로 전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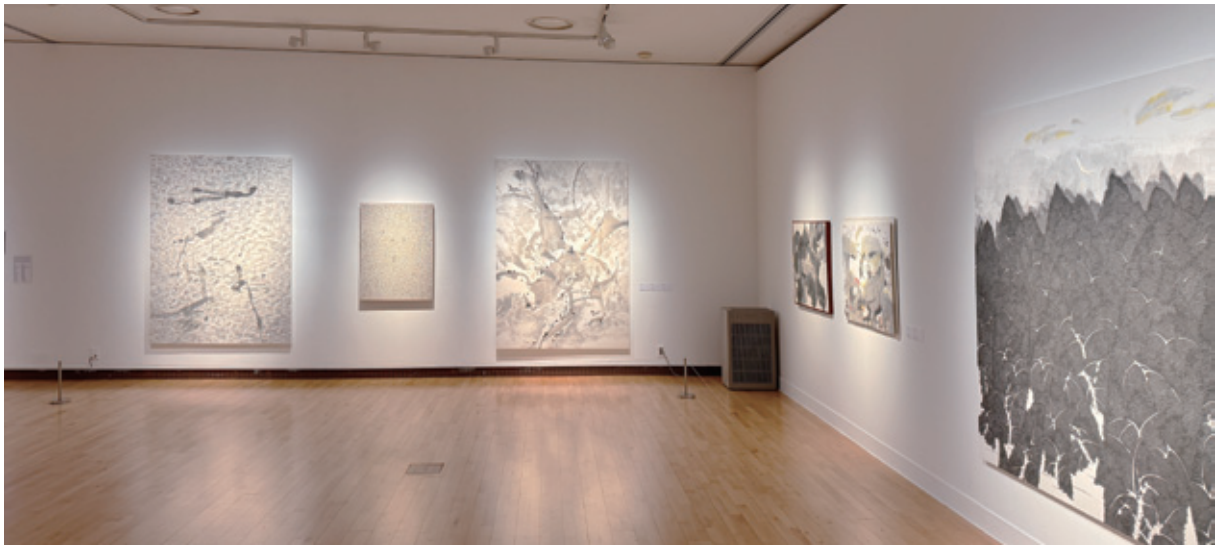


그림1《시정유묵(市情幽墨), 지금-여기》전시장 전경

작가는 오랜 시간 동안 먹에 부여된 정신성이라는 전통적 명제에서 벗어나, 먹 자체의 물성과 그것이 종이 위에서 만들어내는 시각적 효과에 주목해왔다. 이번 전시의 1부 '전통과 현대 사이 - 새로운 수묵'에서는 이러한 실험의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70-80년대 초기작 〈무제(Untitled)〉(1978)와 〈언덕(Hill)〉(1980, 1982) 연작은 수묵화의 전통적 문법을 따르면서도, 먹의 점·선·면, 번짐의 효과를 통해 현대 회화로서의 수묵화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미 이 시기부터 작가는 먹이 지닌 정신적 의미보다 재료 그 자체의 물질성에 주목한 것이다. 붓끝에서 번져나가는 먹의 우연성과 그것을 통제하고 구조화하는 작가의 의도 사이에서 화면은 긴장감을 획득한다. 이는 단순히 전통 수묵화를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묵화라는 매체가 동시대 미술의 맥락에서 어떤 조형적 가능성을 지니는가를 묻는 작업이었다.

이철량의 관심은 점차 먹의 물성을 넘어 시간성으로 확장되어 간다. 2부 '동시대 회화로서의 수묵 - 또 다른 자연'에서 펼쳐지는 2000년대 이후의 작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특히 〈도시〉(2007-2018) 연작에서 작가가 시도하는 것은 '자연 중심의 수묵'에서 '도시 중심의 수묵'으로의 전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의 윤곽이 아니라, 도시가 품고 있는 시간의 축적과 변화의 과정이다. 흑과 백의 대비는 단순한 명암이 아니라 생성과 소멸, 기억과 망각이 교차하는 시간의 층위를 드러낸다. 전통 산수화가 자연을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본 것처럼, 이철량은 도시를 유기적 생명체로 재해석하며, 그 안에 축적된 시간들을 가시화한다.

〈또 다른 자연〉연작은 이러한 관점을 더욱 밀고 나간 작업이다. 이제 자연은 산과 숲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시 속 흔적,

인간의 존재, 시간의 흐름이 얽힌 모든 것이 작가에게는 자연이다. 화면 속 작은 점들이 모여 군집을 이루듯, 개별적 순간들이 축적되어 거대한 시간의 풍경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먹이라는 전통 매체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를 사유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동시대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변한다.



그림2 《또 다른 자연》연작

전시 제목인 '시정유묵(市情幽墨)'은 도시의 감정(市情)을 그윽한 먹(幽墨)으로 표현한다는 의미겠지만, 전통 수묵화가 자연의 정신을 담아냈다면 이제는 도시적 삶의 본질을 먹으로 사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작가의 미학적 견해를 고려한다면 '시정유묵(市精幽墨)' 또한 그 의미가 닿는다. 어쩌면 세속적이며 현실적인 도시(市)의 정수(精)와 전통적이고 정신적인 그윽한 먹(幽墨)의 결합은, 쉬 어울릴 수 없는 조합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철량에게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도시를 부정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고 현대적 생명체로 받아들이는 작가의 관점에서, '市精'은 도시적 삶의 정수, 즉 인간의 흔적·시간·기억·관계 같은 현대적 자연을 의미한다. 그리고 '幽墨'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내면과 사유를 담는 정신적 매체로서의 먹이다. 먹의 농담, 번짐, 흔적이 시간과 존재를 담아내는 매체라는 인식이 이 조어 속에 압축되어 있다.

결국 '시정유묵'은 "현대의 자연, 즉 도시와 인간의 존재를 수묵으로 사유한다"는 작가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1980년대 이후 한국화 담론의 중요한 변곡점을 표상하는 언어적 실천이기도 하다. 전통 수묵화가 산수 속에서 정신을 길어 올렸다면, 이철량은 도시 속에서 시간과 존재의 본질을 길어 올린다. '정(精)'과 '유(幽)'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도시 속에서 사라지고 잊히는 '기억', '시간', '정신'을 먹으로 드러내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이철량이 50여 년간 천착해온 작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탐구는 결국 시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작가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대신, 대상이 지닌 시간까지를 포함하고자 한다. 그에게 먹을 다루는 일은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행위다. 50여 년의 작업 궤적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성이다. 초기의 매체 실험이 먹의 공간적 효과에 집중했다면, 최근 작업은 시간의 축적과 순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원을 시각화한다. 계절의 흐름 속에서 쌓여가는 시간과 생명의 순환을, 그는 흑과 백의 긴장과 조화를 통해 화면 위에 응축시킨다. 먹(墨)은 물질이지만, 그 번짐과 흔적은 비물질적 시간성을 드러낸다. '시정유묵'은 이러한 물질과 비 물질, 현실과 정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언어다.

이렇듯 작가는 전통과 현대, 도시와 자연, 과거와 현재라는 경계에서, 먹이라는 매체를 통해 '지금-여기'의 존재 방식을 질문한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미술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시간 속에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근원적 성찰로 이어진다. 그의 먹빛은 과거에서 출발해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순환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다.

불완전한 행복의 지속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가능성'으로서의 회화 — 작가 장영애의 작업실에서

조재휘(미술비평 / 미술이론)



작업실 곳곳에는 드로잉과 습작들이 흩어져 있고, 재료 실험이나 화면 구성의 변주 같은 다양한 시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장영애의 작업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술학원으로 쓰였던 공간이다. 학생들과 그림을 나누던 장소가, 시간이 흐르며 이제는 오롯이 작가 자신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작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학원의 간판을 내리고, 내면과 외부를 연결하는 실험실로 전환한 것이다. 장영애의 작업실은 단순한 제작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학원 시절을 품으면서 현재의 실험실이 된 장소다. 가르침의 기억과 창작의 시간이 포개진 이곳에서 그녀의 회화는 우리에게 묻는다.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누구와 더불어 지속될 수 있는가?"

장영애가 2017년부터 천착해온 프로젝트의 이름은 〈수퍼해피 SuperHappy〉다. 다소 나이브하게 들리지만, 이 명명은 오히려 행복을 단순한 긍정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 지속가능성과 구조적 조건을 되묻는 장치다. 장영애에게 '수퍼해피'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불완전성과 긴장, 그리고 관계적 공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긴 여정의 표지다. 그의 붓질은 종종 '무위(無爲, non-agir)'를 닮았다. 억지로 무엇을 완결하려 하지 않고, 감각의 흔들림과 관계의 빈틈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서 작품은 완결된 행복의 선언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열렸다가 흩어지는 작은 장면들이다. 그것은 낯설지만 따뜻한 마이크로 유토피아이며, 동시에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하는 응시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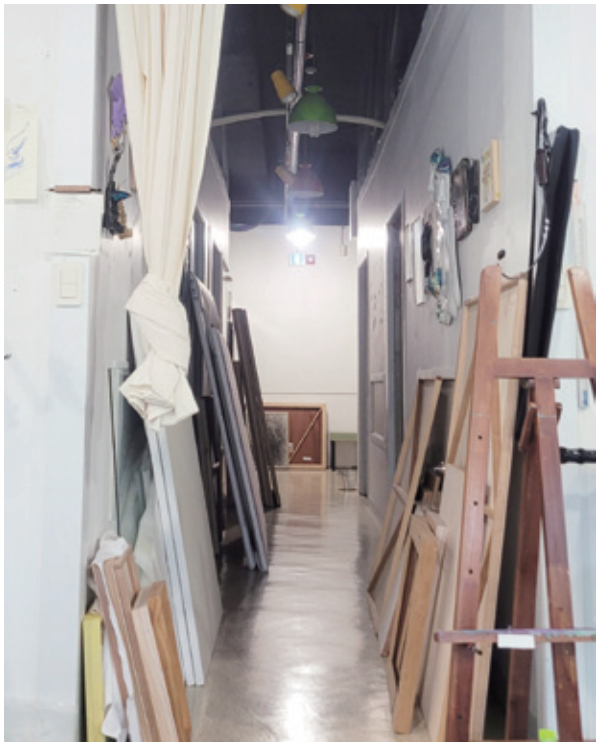
그의 가장 최근 전시는 지난 5월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에서 열린 〈흐르는 광장(The Fluid Square)〉이었다. 이 전시에서 그는 광장을 "밀실의 집합체"로 규정하며, 개인적

내밀성과 사회적 관계가 서로 스며드는 역설적 공간을 제시했다. 화면에는 유동하고 얽히는 시선과 발걸음, 그리고 공존의 리듬이 드러났다. 대중의 밀실이 곧 광장이 되고, 개개인의 밀실 역시 또 하나의 광장이 된다는 역설. 그 역설이 작품 속에서 진동하며, 불완전하지만 잠정적인 공존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오는 12월, 같은 제목으로 한벽 문화관에서 열릴 개인전은 이 흐름을 잇되 또 다른 변화를 담아낼 예정이다. 동일한 제목 아래 전개되는 이번 전시는 지난 5월의 작업에서 드러난 주제와 감각들을 확장하며, '흐르는 광장'이 어떻게 다시 다른 장면으로 변주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장영애는 스스로를 자주 먼지에 비유한다. 으레 하는 겸양의 언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먼지는 하찮고 미세하여 언제든 흩어져 사라질 수 있지만, 동시에 서로 부딪치고 뭉쳐 새로운 덩어리를 만들기도 한다. 우주의 먼지 입자가 모여 행성을 이루듯, 사소해 보이는 조각들이 모여 세계를 구성한다. 그래서 먼지는 곧 연약하면서도 무한히 변주되는 존재 방식의 은유다.

이 자기 비유는 곧 회화의 태도로 이어진다. 장영애의 회화는 무의미성과 주체성의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회화의 익명성'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내려 한다. 그러나 지워진 자리에서 또 다른 현존이 두텁게 드러난다. 그는 관계와 소통의 부재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두터운 이미지로 바꾸어놓는다. 이때 회화는 죽음과도 같다. 주체가 소멸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움튼다는 의미에서, 장영애의 회화를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말한 죽음, 곧 "불가능성의 가능성(Möglichkeit der Unmöglichkeit)"으로서의 회화라 부른다면 지나친 말일까.





서재이(전북대학교)



그림자속 내면 45x45cm 장지에 아크릴 2025

물가에 서 있는 분홍 토끼는 나 자신이다. 토끼가 바라보는 물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면 깊숙이 자리한 상상과 즐거움이 떠 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가장 '나'다워진다. 억누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낼 때, 내 그림자는 파란색이 된다. 이 작업의 출발점은 내가 어릴 적 좋아하던 책 *「이모의 꿈꾸는 집」*이다. 이 책 속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감정을 꽁꽁 숨기고 사는 사람은 그림자가 색을 내지 못해. 기분이 좋을 때만 그림자가 색을 내는 거야."이 문장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평소 나는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것들을 마주할 때만큼은 진심이 드러난다. 이 작품은 그 순간의 나를 그려낸 것이다.물가의 토끼는 현실 속의 나, 물 위의 패턴은 내면 속 나를 상징한다. 멀리 떠 있는 조각배와 한가로이 앉은 개구리는 나의 평화로움, 여유, 조용한 행복의 시간을 나타낸다. 화면 구성은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정리했다. 여백을 통해 시선이 본질적인 감정에 집중되도록 하고 싶었다. 이 작업은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다.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만 나타나는 색, 그 순간의 진심을 기록하기 위한 그림이다.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회화 전공 학사
주요 작업 주제 감정의 시각화, 내면과 상상 세계의 표현
주요 활동 학교 전시 참여, 개인 작업 및 설치작업 진행
관심 분야 회화, 설치, 일러스트레이션, 스토리텔링 기반 작업

낯선 시선으로 그리는 외계인의 수묵
<삐삐-삐, 이방인의 정원>

나는 언제나 겉도는 존재 이방인이라 느껴왔다.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군중 속에서는 숨이 막히고 풀과 꽃을 사랑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가면 기침이 터진다. 그래서 나는 늘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한 발 물러서 낯설게 바라보았다. 이 방식은 내게 오히려 편안했고 그렇게 비껴 선 시선이 곧 이방인의 태도가 되었다. 직접적이지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감 속에서 나는 세계를 관찰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작업의 방법론이자 삶의 태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낯선 시선은 상상으로 확장되어 만약 나처럼 모든 것을 낯설게 보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우주를 유랑하는 외계인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들이 수묵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풍경이 남겨질까. 작업 속에서 꺼내 본 기억은 온전한 장면이 아니라 빛의 파편으로 남는다. 그것은 일상 속 작은 순간이기도 하고 불시에 스쳐간 섬광이기도 하다. 군 복무 시절 강릉 산불에서 본 불빛은 그중 가장 강렬한 사건이었다. 두려움과 상실을 남겼지만 동시에 내게 새로운 감각의 문을 열어준 빛이었다. 소소한 일상의 장면, 불시에 찾아온 균열, 우연처럼 다가온 순간들 역시 나를 다른 질서로 이끌었다. 나는 그 빛의 조각들을 회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내며 다른 질서로 번역해왔다. 외계인이 수묵을 그린다면 아마도 나처럼 수집한 기억의 섬광과 흔적을 우주의 패널 위에 새겨넣지 않을까.

내게 우연은 늘 일상의 일부였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드러나는 대로 두었다. 때로는 폭죽처럼 터져 나오는 장면에 감탄하며 그 흔적이 이끄는 길을 따라갔다. 강렬한 재난의 순간도소소한 일상의 풍경도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세계의 질서 속에 포함된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감탄의 반복이었다. 화면 위에서 반복되는 획은 정교하게 얽히면서도,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을 담고 있다. 그것은 잘 짜여진 코드 같으면서도, 별자리 같고, 숲이면서도 우주 같았다. 그렇게 나는 '이방인의 수묵'을 그린다. 낯선 눈으로 다시 쓰는 세계의 풍경, 그것이 나의 작업이다.

나는 내가 남기는 모든 획이 결국 신호라고 믿는다. 알루미늄 패널 위에 머문 은하수의 흔적은 하나의 암호이고 우주의 어딘가로 흘러가는 메시지다. 언젠가 이 심겨진 언어들을 해석할 누군가를 기다리며 나는 오늘도 숲을 가꾼다. 은하수로 자란 나무들과 별빛의 반짝임이 얽혀 정원이 된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 기억과 우주의 질서가 겹쳐 이루어진 풍경이며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보낸 나의 신호다. 외계인이 수묵으로 그린다면 그것은 별빛으로 엮인 숲이자 나의 정원 그리고 이방인의 눈으로 다시 쓰여진 세계일 것이다.



Pi Pi-Pi 삐 삐-삐
116.8x80.3cm 알루미늄 패널에 분채 2025



이방인의 정원
116.8x80.3cm 알루미늄 패널에 분채 2024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2인전 편안한 잠에 이르는 법. 2025, WWWSPACE, 서울
단체전 익숙함을 벗어난 자리. 2025, 온에어 갤러리, 서울, 가난한 인간의 빵. 2025, 온에어 갤러리, 서울, Spring Harmony. 2025, KUMA, 서울, 환상적 고요. 2025, Gallery thearte, 서울 환상박피. 2024, 소요재 갤러리, 서울, 몸짓-24'' 그 울림의 여정. 2024, 현대미술공간C21, 서울, 청년교류전시 잇다. 2024, 누에아트홀 작은미술관, 완주, FRIENDSHIP MENTOR-MENTEE. 2022, 갤러리코사, 서울
수상 서울 강서문화원 겸재미술대전 우수상, 2022

정지용(충북대학교)



사유의 숲 29 45×53cm 한지에 수묵채색, 아크릴 2025

과거 카메라를 통해 수집한 이미지들을 보며 그것이 본연의 모습과는 멀고 딱딱하게 느껴졌다. 그 계기로 카메라 이미지가 아닌 직접 본 풍경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체화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풍경을 그리고자 했다. 일상 속 마주한 풍경과 장면들은 내면 깊이 켜켜이 쌓이고 이따금 머리에 상(想)으로 되살아난다. 그 심상의 풍경을 화면 위에 기호화한 선들로 무수히 반복하고, 채색한다. 그 안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과 잎사귀, 하루 동안 변화하는 빛과 색, 자연의 질감이 겹겹이 쌓여 있다. 화면은 객관적 재현이 아닌 과거의 기억들과 현재의 즉흥적인 감각들이 쌓이며 만들어진다.

작품 속 집은 나를 닮은 존재이기도 하다. 자연 속에서 내가 느낀 정서와 체험, 그리고 내면의 흔적을 담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한다. 집은 화면 안에 작게 존재하며, 나와 자연, 기억과 상상, 실재와 심상의 경계를 잇는 매개가 된다. 또한 작게나마 자신의 위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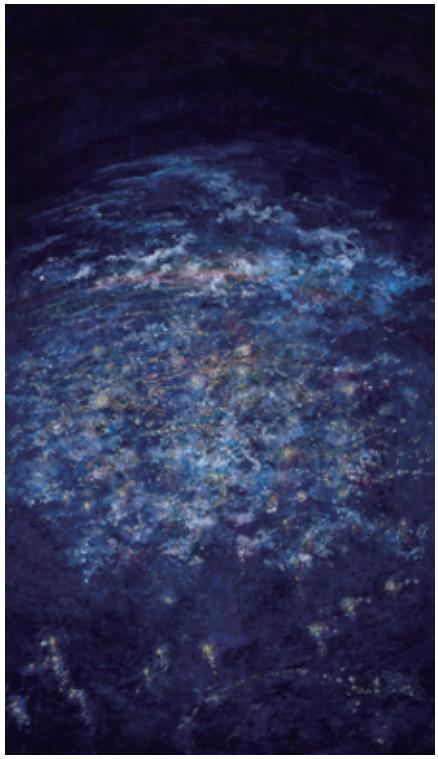
결국 나의 작품은 무수한 선들과 색을 통해 발현한 심상의 풍경이자 개인적 감각과 기억이 쌓여 만들어 낸 실재와 비실재 사이의 공간이다.

2022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동양화전공 학사 졸업 2025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동양화전공 석사 수료
개인전 2023 산책자의시간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단체전** 2025 가온 갤러리 기획전 (가온 갤러리, 서울), L.E.A.P (갤러리 그림손, 서울), Up and Coming Artists (갤러리 한스, 부산), 2024 아트그라운드 서울 2025 (노들갤러리, 서울), 초록색의 날들 (갤러리 헤세드, 서울), 지금, 바로 여기 (갤러리 그림손, 서울), Wavy Wave (호리아트스페이스, 서울) , 제 7회 전국 미대 우수 졸업작품전 (에코락갤러리, 고양), 2023 불안정한 가능성 1/2 (쉐마미술관, 청주) , 2022 정지용, 류승주 2인전: Break time (더팜카페 갤러리, 청주), 2021 0의 발견展 (목간 카페 갤러리, 청주) **아트페어** 2025 대구 국제 아트페어, DIAF (EXCO, 대구), 화랑미술제 (COEX, 서울), 조형아트서울 (COEX, 서울), 화랑미술제 in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수원), 2024 화랑미술제 in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수원), 홍익하다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Art X Seoul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2023 아시아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유한비행 112.1x192.9cm 장지에 수비안료 2025

시간의 유한성과 소멸을 체감하는 경험은 허무와 무력감을 준다.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끊임없는 불안을 안겨 주었다. 특히 사랑하는 존재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무력감은 내게 예술 언어로 말하고 싶은 사유 중 일부가 되었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표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불완전한 내면의 정서를 유한한 현실세상과 대비되는 무한하고 영원한 초월적인 풍경을 통해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가시화한다. 소멸과 재생의 순환 속에서 인간이 삶에서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고자 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 관계와 시간이 쉽게 소비되고 잊히는 현실 속에서도 기억은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남아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소멸은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실, 외로움, 그리고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를 현실에서 잠시 벗어난 초월적 장면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추상의 기억을 파편처럼 시각화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필연궤도 192.9x112.1cm 장지에 수비안 2025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학사
2024 평택 더네이처 갤러리 4인전 [사색의빛] (01.31-03.27), 안성 아양도서관 5인전 [마음의안식처] (04.13-04.18), 중앙대학교 한국화전공 포석 단체전시 [눈길 - 내가보는 시선] (05.18-05.28), 서라벌갤러리 피아노×한국화 전공 협업 전시연주회 [Nostalgia] (11.12-11.14) 2025 부산 한국화전공 대학 연합 단체전 한국화展 [自然-스럽게] : 자연-스럽게 (02.12-02.16), 서울숲 BGN밝은 눈 안과 미술대학 연합전시 (07.07-07.13), 서울 중앙대학교 한국화전공 기획전시 [MEMO : RY] : remind remember react (07.23-07.27)

이천이십오년 11월

제32호
한국회화회

Korean Painting Art

● '한국회화회'는 다양한 미술의 흐름 속에서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의욕적인 작품활동의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지역의 작가들과 교류 및 전시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지역 예술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회화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역량을 높이고 저변확대의 기회를 널리 갖고자 한다.

한국회화회 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 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 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 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 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
(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 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 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사: 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 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 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청 세미나(주제: 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청강사: 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 청특강 (주제"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 3. 31 백제대학 기획 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 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 김영애, 윤호, 이혜련, 최윤경, 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 30-12. 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 ,산동)
2004. 6 정기모임: 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 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
-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 1. 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 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회(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 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 9. 2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 (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 (송현성)
2013. 12. 10-15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 모임 (신입회원 : 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 전시회(도립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대전 (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 (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2015. 11 정기 모임
2015. 12. 10-2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5. 12 통권 제22호 발행
2016. 11. 18-12. 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6. 12 통권 제23호 발행
2017. 12. 1- 8 정기전시회(남원 예가람길 갤러리)
2017. 12 통권 제24호 발행
2018. 2. 10 정기총회
2018. 4. 11 정기모임 - 송태정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6. 28 정기모임 - 박지예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0. 24 정기모임 - 박성수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1. 13-22 정기 전시회(누벨백 미술관)
2018. 12 통권 제25호 발행
2019 신입회원 (김준근, 박종갑, 오송규, 윤대라, 임진성
임 효, 임희성, 조병완, 최창봉)
2019. 1. 3- 4 동계 워크샵 (여수)
2019. 5. 7 정기모임
2019. 7. 3 좌담회 준비회의
2019. 7. 16 좌담회(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과
전북회화회의 발전 방안 모색)
2019. 9. 23 회의 (30주년 기념 전시 및 회화회지)
2019. 10. 2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19. 11. 1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19. 12. 12-21 전북회화회 30주년 기념 전시(누벨백 미술관)
2019. 12 통권 제 26호 발행
2020 신입회원 (김지현, 박방영, 이지희, 이호억, 진희란, 박두리)
2020. 1. 10 정기모임
2020. 7. 30 정기모임 (전북회화회지 및 정기전시 관련 회의)
2020. 11. 7 정기모임 (완산가/아트커뮤니케이션)
2020. 12. 5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20. 12. 6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20. 12. 12-19 정기전시 (누벨백 미술관)
2020. 12 통권 27호 발행
2021. 8 편집위원회 (회화지 논의)
2021. 10 정미현회원 작업실 방문
2021. 10 회화회 청년 작가 좌담
2021. 11. 24 통권 28호 발행
2021. 11. 30-12. 7 정기전시(누벨백 미술관)
2022. 4. 정기모임 및 이호억작가 작업실 방문
2022. 5. 편집위원회의(회화지 논의)
2022. 9. 미술기행(프리즈, 키아프 전시)
2022. 신입회원(권기철, 손다운, 손종민, 최지우)
2022. 12. 통권 29호 발행
2022. 12. 6-12. 13 정기전시(누벨백 미술관)
2023. 5. 13 파주미술기행 및 박방영 작가탐방
2023. 6. 편집위원회의 1차회의
2023. 6. 회화회지 발행 및 전시운영 협의회
2023. 9. 전시 및 포럼 운영회의
2023. 신입회원(정진옹)
2023. 12. 통권 30호 발행
2023. 12. 13-12. 18 정기전(전북도립미술관 JMA스페이스 서울)
2023. 12. 13-12. 14 비전23, 한국회화 포럼개최(양평 블룸비스타호텔)
2024. 2. 2 연간활동계획 운영위 협의회
2024. 3. 29 경주미술기행 및 박대성작가탐방
2024. 7. 1- 9. 30 양평 블룸비스타 기획초대전-한국회화
2024. 7. 2- 7. 3 양평 블룸비스타 전시 참여 및 지역 전시 탐방
회화지 발간 및 정기전 협의
2024. 11. 한국회화회지 통권 31호 발행
2024. 11. 27-12. 8 정기전(완주 누에아트홀 기획초대전)
2024. 신입회원(조재휘)
2025. 7. 6 회화회 모임—전시및 회화지 구성논의
차세대 작가 참여와 활성화에 대한 제안
2025. 8. 3 32호 회화회지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2025. 10. 25 수묵 미술기행 - 전남도립, 시립미술관
우제길 미술관 탐방 및 작가와의 만남
2025. 11. 한국회화회지 통권 32호 발행

한국회화

발 행 인 정미현
편 집 인 정미현
편집위원 손다운, 조재휘, 박성수
표지제자 박방영
발 행 일 2025. 11

Design by 도서출판 디자인북스

이 책에 수록된 도판과 텍스트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도판이나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2025 by Korean Painting Ar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author.

※ 본 전시는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5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